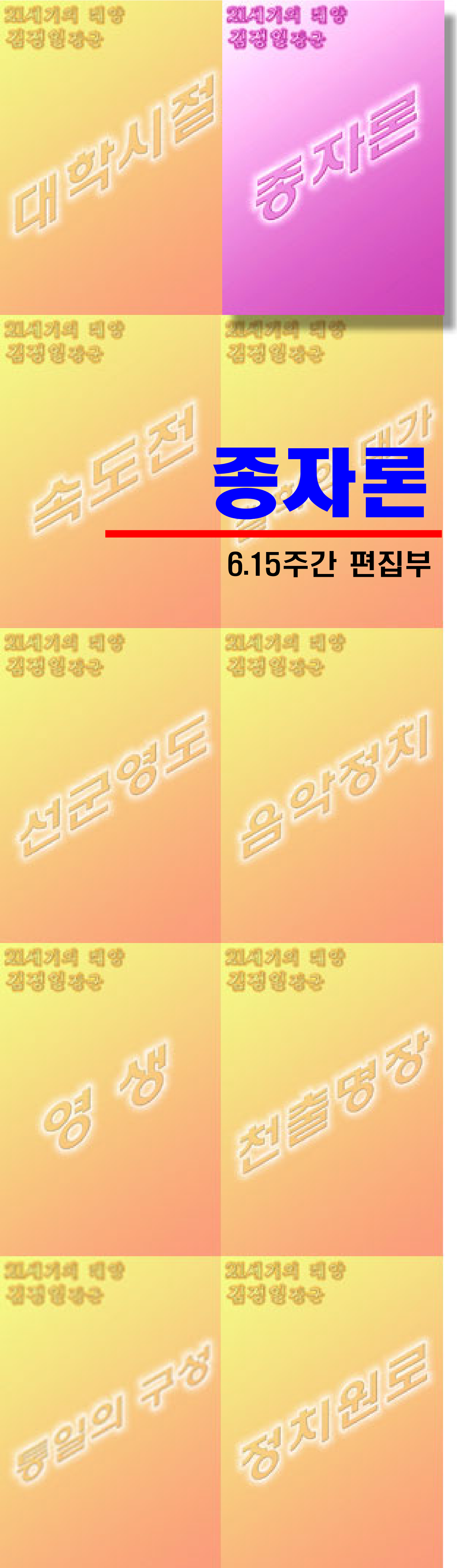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2

종자론



6.15주간 편집부



종자론

6.15주간 편집부

노작

4 영화예술론 –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8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종자란 무엇인가

10 종자란 무엇인가
11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이다
16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다
20 종자와 소재
24 종자와 주제
28 종자와 사상

종자의 기능

32 종자의 기능
33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37 종자는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요인이다
42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46 종자는 창작가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다

종자의 탐구

50 종자의 탐구
51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55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아야 한다
58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62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과 창작의 원리

66 사상성과 예술성

71 독창적인 문예이론

주체의 문학예술혁명

73 20세기의 문예부흥
74 수령형상창조
75 공산주의인간학
76 영화예술혁명
77 가극혁명
79 무용표기법
80 건축은 종합예술

주체문예의 개화발전

82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개화발전

86 창조와 변혁을 위한 독창적인 종자론



영화예술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주체81(1992)년 5월 23일

영화예술론

주체62(1973)년 4월 11일

· · ·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려면 무엇보다 먼저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 잡아야 한다.

작품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 나가는 기본요인을 똑똑히 아는것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 짓고 이끌어 나가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오래동안 론의를 벌려 왔으나 이에 대한 똑똑한 해명을 보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비로소 정확하게 밝혀 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작품에서는 사상적알맹이, 다시 말하여 핵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작품의 핵은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과학론문을 쓰는 경우에도 필자가 말하려는 사상적알맹이가 뚜렷이 안겨 올 때에야 체계를 세우고 론리를 전개해 나갈수 있다. 맑스도 그의 경제학설의 핵을 이루는 잉여가치법칙을 발견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핵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해부한 ≪자본론≫을 쓸수 있었다. 맑스가 ≪자본론≫의 핵을 발견하기까지에는 모순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사회경제제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의 연구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과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들가운데서 본질적특성을 띠는 핵을 똑바로 찾아 내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종자의 발견이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작품에 그리는 생활은 일정한 인간문제를 가지고 있는것이여야 한다. 작가는 현실에서 아무것이나 다 받아 들이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급적립장과 사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만을 받아 들인다. 종자는 생활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작가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의의 있는 생활소재를 잡아야 한다. 소재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 피울수 있는 생활바탕으로 되는것만큼 의의 있고 참신한 생활소재를 잡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전제로 된다. 그러나 생활소재가 아무리 가치 있는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작품에 그대로 옮겨 놓거나 라렬해서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없다.

생활소재는 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되고 형상적으로 재구성될 때에만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밝혀 내는 생활바탕으로 되는것이다. 소재가 종자의 생활적기초라는것도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작가는 종자를 똑똑히 골라 잡고 깊이 파악한 기초우에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세워 놓아야 한다.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똑히 골라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지난 시기 혁명전통주제요, 혁명화의 주제요 하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걸어 놓고 창작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체적인 문제를 내세운 경우에도 사상적알맹이를 똑똑히 잡아 쥐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시간과 정력만 허비했을뿐 씨가 박힌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일반적이든 구체적이든 사상적알맹이를 잡아 쥐지 못하고 생활의 이러저러한 문제만 창작의 기초로 삼을 때에는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작품의 사상도 종자로부터 흘러 나오는것이므로 종자를 똑똑히 쥐여야만 생활을 통하여 의의 있는 사상을 깊

이 있게 밝혀 낼수 있다. 종자가 의의 있고 명백해야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주제와 사상도 의의 있는것으로 되고 명백하게 살아 나게 된다. 뚜렷한 종자가 없이 그저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이나 천리마기수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 주겠다는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는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를 내놓을수 없고 따라서 말하려는 사상도 옳게 밝혀 낼수 없게 된다.

작가는 생활에서 가치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깊이 파악한 조건에서만 작품에 의의 있는 주제와 사상을 뚜렷이 제기할수 있고 그것을 밝히는데 알맞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작품의 사상성은 생활의 본질을 밝혀 내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사상성은 의의 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생활발전의 론리에 맞게 깊이 있게 그려 낼 때에만 보장될수 있다. 작가가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 잡아 쥔 사상적알맹이야말로 시대와 사회의 특징을 뚜렷이 밝히며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주고 생활을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고무하는 작품의 핵으로 될수 있다.

사상적알맹이를 쥐지 못한채 작품의 사상성을 높이려고 애쓰는것은 땅에 씨앗을 심어 놓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작품을 보면 일정한 이야기거리도 있고 재미나는 일화도 있지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흔히 이런 결함은 사상적알맹이를 잡지 못한채 형상을 꾸며 내는데서 생긴다. 좋은 종자를 가지고 진실하게 창조한 형상에는 고상한 사상이 깊이 있게 담겨 질수 있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종자는 생활을 통하여 잡아 쥔 사상적알맹이이므로 처음부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 작가가 종자를 잡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것이 아니라 생동한 생활로써 파악하기때문에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작품내용의 기본으로 되는 동시에 형식의 기초로 되며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된다.

종자는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 내릴 바탕으로도 된다.

작가가 생활에서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벌써 작품에 그려 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도 예상하게 된다. 작가가 종자를 발견하였다고 할 때 사상적알맹이가 박혀 있는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 등과 같은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암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무르익은 종자라고 말할수 없다.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표상을 주는 종자, 이것이 진짜종자이다. 사상적본질이 명백하고 생동한 종자만이 형상의 요소들도 명백하고 생동하게 안겨 줄수 있는것이다.

종자는 작가를 창작에로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환상과 창조적열정의 원천이다.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숭고한 사명에 대한 높은 자각은 작가를 보람찬 창작활동에로 고무추동하여 준다. 그러나 자기임무에 대한 자각이 높은 작가라고 하여도 의의 있는 종자를 골라 잡지 못하면 작품을 거침없이 써 나갈수 없다.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 잡아야 비로소 창작적열정에 불 타게 되며 예술적환상을 활짝 펼칠수 있다. 심장을 틀어 잡고 끝 없이 불 태워 주는 종자를 잡아 쥐였을 때 작가는 커다란 힘과 재능을 발휘할수 있고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열정으로 밤낮을 이어 가며 창작에 열중할수 있다. 종자야말로 작가의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떠밀어 주고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 된다.

좋은 종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힘 있게 벌릴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될뿐아니라 작품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종자를 옳게 골라 잡는것은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탐구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 있는 종자를 찾아 내여 생동하게 형상해 낼 때에만 작품의 인식교양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현실의 어떤 대상에 눈을 돌리며 사회생활의 어떤 측면에서 종자를 골라 잡는가 하는것은 문학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서 이것은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푸는데서 주요한 작용을 한다.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은 종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되므로 종자를 옳게 골라 잡는것은 창작에서 관건적문제로 된다.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우리 당의 정책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그 해결방도를 제때에 과학적으로 밝혀 주고 있다. 우리 당 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옳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눈을 틔워 주며 생활을 보다 훌륭하게 개조해 나갈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작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 정책을 깊이 알고 현실을 보아야 한다.

당정책에 의거하여 현실을 대하는 작가만이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똑바로 가려 낼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좋은 종자를 찾아 내기 위하여 당정책을 연구한다기보다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 낸다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어떤 생활에서 종자를 찾기 위하여 그 문제의 각도에서

만 당정책을 학습하는데 그치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할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밖에 볼수 없으므로 종자를 똑바로 잡아 쥐지 못하게 된다.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을 한갖 지식으로만 받아 들이는 실무주의적경향을 배격하고 당정책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당의 요구에 맞는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잡아 쥘수 있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에서 의의 있는 종자들을 찾아 내야 한다.

생활의 사상적씨앗을 골라 잡을 때 예술창작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예술성만 내세우고 정치적요구로부터 물러 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정치적의의가 있는 종자를 잡는다고 하면서 정치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생활만 찾으려고 해서도 안된다.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나 문화도덕생활에서도 사회적의의가 있는 종자를 잡아서 얼마든지 정치성 있게 그릴수 있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의 사회정치생활, 문화도덕생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당정책에 맞게 풀어 내는가 하는데 있다.

예술영화 ≪로동가정≫에서 처음에 들고 나온 종자는 쇠돌을 캔다고 해서 로동자가 아니며 쇠돌을 좀 다루었다고 해서 로동계급이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였다. 로동자가정의 혁명화과정을 보여 주는 영화를 만들려는 일반적인 의도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이렇게밖에 세울수 없었다.

우리는 당정책에 기초하여 생활을 새롭게 리해하도록 작가를 도와 주면서 생활을 더 깊이 파고 들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적처지와 혁명위업에 비추어 보다 심각하고 절박한 종자를 새롭게 찾아 내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작가는 로동계급이 근본을 잊어서는 안되며 근본을 안다고 해도 자신을 계속 혁명화하지 않고 자만하면 변질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작품에 심어 놓을수 있었다.

이 종자는 사람들에게 로동계급도 혁명화해야 할뿐아니라 혁명화는 누구나 다 해야 하며 또 언제나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인식시켜 주는데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여기서 사람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본보기로 되는 로동계급자체를 혁명화함으로써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절실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는것이다.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아야 할뿐아니라 형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되는것만큼 인간학의 본성에 맞게 당정책을 형상적으로 구현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경제건설이나 문화건설과 관련된 당정책을 구현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종자는 어디까지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작가가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주요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관계, 작품의 구성과 양상 같은것을 전혀 예상할수 없는 사상적알맹이를 쥐였다고 하면 그는 문학의 종자를 잡은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풀어야 할 종자를 잡은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어떤 작가들은 문학의 종자가 될수 없는 사상적문제를 걸어 쥐고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학의 종자로 될수 없는것을 쥐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형상을 창조하려고 애써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 가치 있는 사상적알맹이라도 형상을 거쳐 밝혀 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없는것이다.

종자를 골라 잡을 때 정치사상성만 중요시하고 예술적의의를 홀시해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성이 높아도 예술적형상으로 풀어 낼수 없는것이라면 예술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그래서 종자는 작품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도 된다고 하는것이다. 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골라 쥐지 못하면 사상성도 예술성도 다 살려 내지 못하게 된다.

정치적의의와 예술적가치가 있는 종자를 골라 잡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생활을 폭 넓게 탐구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에 나가서 근로자들의 보람찬 생활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 들이는것이다. 현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작가는 자기의 정치사상수양을 쌓으면서 창작에 필요한 종자를 골라 잡을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겉만 훑어 보고 다니면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러저러한 소재나 얼마간 얻어 가지고 돌아 와서는 좋은 작품을 써낼수 없다. 작가는 현지체험을 하러 떠날 때 반드시 새로운 종자를 찾아 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떠나야 하며 돌아 올 때에는 어김없이 좋은 종자를 골라 쥐고 와야 한다.

물론 작가는 모든 생활을 직접 체험할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실지 체험한 생활만 가지고 창작하는것은 아니다. 지나 간 생활은 물론, 오늘의 생활이라고 하여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하여 체험하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어 보지 못한 과거의 생활을 내용으로 하여 작품을 쓸 때일수록 그 당시의 실생활자료들을 깊이 연구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는 종자를 찾아 내야 한다.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종자는 혁명에 충직하였던 불굴의 혁명투사들인 오중화, 오중흡일가의 실생활자료들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찾아 내지 못

하였을것이다.

현실에 들어 가도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생활을 대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종자를 찾아 낼수 없다.

작가는 현실을 폭 넓고 깊이 있게 볼줄 알며 시대의 지향을 한가슴에 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불타는 열정과 고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롭고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다.

종자는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것이여야 한다.

생활에서 특색 있는 종자를 골라 잡는것은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비반복적인 형상창조는 작품의 사상예술적기초로 되는 종자를 독창적으로 고르는데로부터 시작된다. 특색 있는 종자를 골라 잡아야 작품에 새롭고 의의 있는 문제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상 깊고 흥미 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새롭고 특색 있는 종자란 언제나 비반복적인것이며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특색 있는 종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다가의 수억만 모래알가운데 있는 하나의 금싸래기처럼 희귀한것이여서가 아니라 생활속에 많으면서도 그 특색을 제때에 옳바르게 가려 내는 일이 쉽지 않기때문이다.

특색 있는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형상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은 새롭고 특색 있는 종자로부터 흘러 나온다. 따라서 작가는 같은 분야의 생활에서도 언제나 새롭고 특색 있는 종자를 찾아 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반복과 류사성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활분야를 찾아 가는것도 필요하다. 어떤 생활분야에서 종자를 고르는가 하는 문제는 특색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작품에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그들의 높은 예술적요구에 해답을 주는데서도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창작에서는 종자를 잘 가꾸어야 훌륭한 열매를 거둘수 있다.

종자를 바로 잡았다고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종자는 어디까지나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며 기초로 될뿐이다. 종자를 옳게 잡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잘 가꾸지 못하면 창작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 작가는 좋은 종자를 골라 쥔 다음에는 거기에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 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해 내야 한다.

당정책에 맞는 종자를 잡은 다음에도 형상과정에 시종일관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사상예술적의도를 정확히 구현할수 있다.

종자를 가꾸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려 내는것이다.

종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 진다. 아무리 이야기를 흥미 있게 엮고 극을 치밀하게 꾸며 나간다 하더라도 인물들이 옳게 설정되지 못하고 성격이 생활론리에 맞게 그려 지지 못하면 결국 종자를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하게 된다. 종자를 직접 구현해 나가는 기본인물은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모든 인물들을 다 잘 그려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인공을 잘 그리는데 더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자면 생활도 잘 그려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은 생활을 통하여 흘러 나와야 사람들에게 접수되고 깊은 감동을 주게 된다.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작가는 현실의 다양한 생활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만 선택하여 그려야 하며 종자와 관련이 없는 생활은 끌어 들이지 말아야 한다. 종자와 관련이 없는 생활을 끌어 들이게 되면 작품에서 밝히려는 사상이 모호해 지고 따라서 작가의 형상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없게 된다.

형상을 창조하는 일은 사상적의도만 가지고는 안되며 거기에 창작기량이 안받침되여 있어야 한다. 작가에게 기량이 없으면 좋은 종자를 골라 잡았다고 하여도 창작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작가는 종자를 골라 잡은 다음에도 그에 알맞는 형상의 기본선을 정확히 틀어 잡고 인물, 사건, 일화, 갈등과 같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지어는 대사 한마디, 장면 하나를 설정하고 처리하는데서도 종자의 요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작품을 쓰는 과정은 작가가 커다란 감동을 가지고 체험한 생활을 다시 종자의 요구에 맞게 그려 나가면서 생동한 형상을 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작가들은 종자를 키워 내는 과정에도 줄곧 생활을 체험하며 사색하며 흥분하며 상상할줄 알아야 한다.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생활의 론리에 따라 생동하게 형상하지 않고 강짜로 드러내 놓는 현상이나 생활을 아무런 예술적가공도 없이 그대로 보여 주는 현상은 다 창작기량이 낮은데로부터 발로되는것이다.

생활에서 골라 잡은 의의 있는 종자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밝혀 낸 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킬수 있다.

종자를 똑바로 골라 잡고 잘 가꾸는것, 이것은 창작의 성과와 작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작가는 종자를 고르고 가꾸는데서 여러모로 진지하게 연구하며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종자를 똑바로 잡고 잘 가꾸는데 시간과 정력과 사색을 아끼지 않는 작가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주체81(1992)년 5월 23일

. . .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정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을 옳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예 사상과 이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힘을 넣어왔습니다.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을 비롯한 주체적인 문학예술이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과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당은 기성 이론이나 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나 주체적 입장에서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 과정에 사상적 대를 세우는 문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문제, 인물들의 극적 과제를 설정하고 역사적 사건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이야기줄거리를 엮고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 문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과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 형상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것을 다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은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예술적 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있다는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요인물들을 설정하고 형상하는데서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작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운명≫에서는 반공이냐, 연공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며 방황하던 주인공들이 연공하는 길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 한몸을 바치는 참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일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펼쳐보이면서도 그들이 뿌리깊은 사대와 반공 의식을 버리고 민족자주의식을 체현한 새 인간으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자주적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일관하게 그려나간 것은 인물성격창조에서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요구를 구현한 것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생활을 그리는데서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랜 역사적시기에 걸치는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펼쳐보이고 있지만 그 생활을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와 성장발전과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복종시켰습니다. 참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의 인간학을 비롯한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의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 있은 본보기작품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지난 기간의 문학예술창작에서 이룩된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작가들은 지난 기간 주체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여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을 훌륭히 창작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문학창작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운 것입니다. 나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학예술형식으로 옮길 때에나 총서 ≪불멸의 역사≫와 시, 가사 작품창작을 지도할 때에도 작품의 대를 바로세우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습니다. 작품의 대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좋은 종자를 골라잡고 주인공선을 잘 살리며 구성의 틀거리를 바로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인간전형을 창조하고 구성의 틀거리를 바로잡아나가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에서는 지난날 문학창

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구성조직에서도 석장의 사진을 놓고 주인공 최현덕의 지나온 한생을 집약하여 보여준 것이라든가 조국의 현실을 많이 펼쳐놓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기발한 착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를 훌륭히 구현한 작품이며 예술적으로 볼 때에는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작품입니다.

지난 기간 문학창작에서 인간생활의 세부를 철학적으로 진실하게 파고든 것도 중요한성과의 하나입니다. 나는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가들에게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보장하려면 생활의 세부를 잘 그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옮긴 영화와 연극, 소설이나 총서 ≪불멸의 역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은 다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활세부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지난날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를 옳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보다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켰습니다. 내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평가하면서 동백기름을 바른 영화라고 하고 화면마다 미남이라고 하였는데 참말로 이 영화는 매 장면, 매 화면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흠잡을데가 없는 진짜 미남이고 명화입니다. 최현덕이 복수심을 가다듬을 때마다 손가락을 꼽는 장면이나 이모네 집을 찾아갔을 때 이모가 비자루를 들고 달려드는 장면, 차홍기가 울분을 새기지 못하여 손등에 담배불을 비벼끄는 장면 같은 것은 매우 인상적인 세부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나라 영화, 연극, 가극 예술에서 이룩한 성과도 높은 수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여러 가지문학예술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영화혁명의 나날에 영화문학,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을 비롯한 영화예술의 모든 부문이 우리 식으로 창조되었으며 가극혁명과 연극혁명의 나날에는 ≪피바다≫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이 나와 가극과 연극 예술분야가 우리 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화와 가극, 연극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 예술에서도 도달할 수 없었던 자주시대의 새형의 영화, 새형의 가극, 새형의 연극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우리 식 연출방법과 연기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창작에서는 목표를 크게 내세우고 노리는 것이 있어야 하며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한다는 우리 식 연출방법의 요구와 연기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들고나오며 생활을 알고 연기형상을 창조할 데 대한 문제, 말과 행동에 가식이 없도록 할 데 대한 문제, ≪잠재의식≫이 아니라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물형상을 창조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우리 식 연기방법의 요구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보천보전자악단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음악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기러기떼 날으네≫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대표작으로서 그 음악형식과 형상방법이 우리 나라 음악발전 뿐 아니라 세계음악발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것입니다. 보천보전자악단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쟈즈, 디스코, 로크 음악 따위의 퇴폐적이며 광란적인 음악이나 연주하는 천한 악기로 취급되고 지어 고전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로 여기지조차 않던 전자악기를 가지고 맑고 깨끗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선률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진실로 음악다운 음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은 오직 인민을 위한 음악, 새롭고 특색있는 음악을 형상하려는 높은 창조정신을 지닌 예술가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전자악단은 광란적인 음악만 연주하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배격당하고 있지만 보천보전자악단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음악예술분야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화음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 과정에 편집술도 한계단 높아졌으며 분장과 의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영화를 만들줄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영화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창작사업에서 속도전을 벌이며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낳은 빛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지난날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창작사업의 특성으로부터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은 속도전의 방침이 매우 정당하고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전의 방침은 가극예술창조분야에도 구현되어 1년 남짓한 기간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창조한데 뒤이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게 하였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7부까지 훌륭하게 완성할 수 있은 것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입니다.

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 앞서 지난날에 세워놓은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환원복구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운명≫창작은 처음부터 철저히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 수 있은 것은 일군들이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창조성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으며 모든 창조성원들이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요구대로 창조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자란 무엇인가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이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자는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문예학적 범주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종자의 본질과 특징을 서술할 수 없다.

문학예술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그리는 것을 본성적 요구로 하는 인간학이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작품에는 산 인간과 실생활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진다.

현실 속에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들과 그들의 실생활에 대한 생동한 화폭으로 이루어지는 문학예술작품은 산 유기체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산 유기체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언제나 생기와 활력이 차 넘치고 있다.

한편의 문학예술작품을 산 유기체로 본다면 거기에 차 넘치는 생명의 핵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시켜 나가는 기본요인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작품창작을 위하여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 문제이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문예학적 범주로서의 종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려면 종자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것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작품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과 요소들의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것들이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작품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여야 한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기본성분으로, 주되는 형상요소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기본성분, 형상요소로서의 종자는 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적 형상의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종자가 작품의 다른 성분들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문학예술작품에서 종자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문예학적 개념으로서의 종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지는데 있어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종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종자가 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작품이 종자를 중심으로,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종자가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여 구성되며 창조된다.

현대과학은 모든 물질이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속성들과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모든 물질, 유기물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무기물질조차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문학예술작품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핵에 의하여 물질의 성질과 특징, 그 구조와 존재방식이 규제되는 것처럼 종자에 의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성격과 특징, 그 구조와 창작과정의 합법칙성이 규정된다. 그리고 핵을 똑바로 파악하여야 해당물질의 성질과 특질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듯이 작품의 핵을 이루고 있는 종자를 똑바로 인식하여야 그 작품의 구조와 특징, 창조과정의 특성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완전히 들어맞는 비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문학예술작품을 일반물질에 비교한다는 것이 꼭 적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모든 사물현상은 그것이 고급한 것이든 저급한 것이든 일반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사물현상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존재하듯이 문학예술작품도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작품의 핵을 이루며 작품의 기초에 놓이면서 작품의 존재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종자이다.

문학예술작품이란 종자로부터 태어난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자로부터 식물의 싹이 트고 가지가 뻗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종자로부터 형상의 꽃이 피어나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조된다.

진정한 문학예술작품은 반드시 일정한 생명력과 사상예술적 가치를 가진다.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란 다름아닌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고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며 기능이다.

고대희랍의 철학가이며 미학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고 썼다. 여기에는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사상정신세계를 깨끗이 조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한 지향과 염원을 가지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진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한 사상적 지향을 가지게 하고 그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모든 형상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열되고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작품에





서 모든 형상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열하고 전일적으로 통일시키는 기초에 놓여 있는 핵이 바로 종자이다.

종자는 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작품의 구조와 존재방식을 규정한다. 종자가 없는 문학예술작품은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며 사상예술적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원천으로, 기본요인으로 된다.

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 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좌우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종자는 소재,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은 서로 다른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품에서 그 지위도 다르고 기능도 서로 다르다.

작품의 형사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놓여 있으며 가장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소재와 주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주제와 사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작품이 기초하고 있는 생활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그만큼 소재와 주제, 사상은 문학예술에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다. 소재와 주제, 사상, 이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는 것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나 창작된 작품들을 연구하고 분석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형상의 기본요소들인 소재와 주제,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 이것은 작품의 소재와 주제, 사상이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며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창작실천에서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품의 소재를 선택하는 문제도, 주제를 설정하고 풀어 나가는 문제도, 사상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문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재와 주제, 사상 등 형상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그것들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는 데 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종자가 작품의 생명력과 가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언급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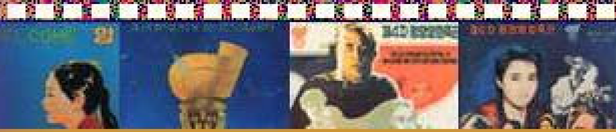
종자가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기초로 된다는 것을 그것이 이 세 요소들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종자이론을 해설한 글들에서는 종자가 마치 소재, 주제, 사상만을 규제하고 그밖의 다른 형상요소들은 규제하지 않는 듯이 서술한 편향을 발로시켰다. 이것은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이해를 가질 수 없게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핵,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지으며 작품의 생명력을 실천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요인인 것만큼 그것은 소재와 주제, 사상을 비롯하여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한다. 여기에 바로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이 종자를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하여 구성되며 창조되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 인간의 사유활동은 일정한 중심을 가지고 진행된다. 논리적인 사유나 감성적인 사유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사유는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초점과 중심을 가지고 있다. 초점과 중심이 없이 진행되는 사유는 목적지향성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뚜렷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 뉴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뉴톤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과가 떨어지는 자연적 현상에 과학적 사고를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사유활동이 중심, 초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인간의 사유활동의 창조물도 중심,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창조물에는 창조자의 기본의도, 기





본지향이 체현되며 그것이 핵, 알맹이를 이룬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종자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모든 대상물들에 고유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상 철학이나 경제학, 역사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학분야에서와 출판보도분야에서도 종자이론이 적용되고 있으며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종자가 문학예술에만 고유한 범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소여대상의 핵으로, 알맹이로 된다는 점에서는 문학예술에서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문학예술에서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문학예술에서의 종자는 창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구별된다.

종자는 생활 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이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은 생활의 형상적 반영이다. 생활을 떠나서 문학예술작품이 창조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사상미학적 이상과 현실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일적으로 구현된다. 작품에 그려지는 생활에는 언제나 작가의 사상적 관점과 미학적 이상이 담겨져 있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으며 일정한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의 씨앗이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창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된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는 데 문학예술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가령 과학논문의 경우에는 종자가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의 형태로 표현된다.

과학논문을 쓰는 경우에도 필자가 말하려는 사상적 알맹이가 뚜렷이 정해진 때에야 체계를 세우고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칼 맑스의 저작 ≪자본론≫의 사상적 알맹이, 종자는 잉여가치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맑스는 ≪자본론≫을 집필하기 위하여 모순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사회 경제제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맑스는 잉여가치법칙을 발견해 내었으며 그것을 핵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해부한 ≪자본론≫을 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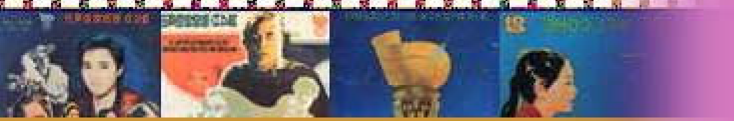
과학논문의 경우에는 필자가 논문에서 말하려는 기본사상, 기본문제가 종자로 된다. 이와는 반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보다 형상적으로, 생활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낸다. 산 인간의 실생활로 차 넘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을 이루는 종자가 생활적으로, 형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는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종자에는 작품의 기본사상이 체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그려진 생활의 정수가 구현되어 있다. 이 종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 안중근의 성격과 생활, 그의 활동을 그려볼 수 있게 하며 작품의 생활화폭에 대한 대체적이고 윤곽적인 표상을 가질 수 있게한다.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흘러나온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논리적인 개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된다. 따라서 그 어떤 명제나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는 방법으로써는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생활속에서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도 종자 자체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다. 그리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 것이 과학논문의 종자를 골라잡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우며 더 많은 창작적 지혜와 재능,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의 발견은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 놓은 위대한 역사적 사변이다.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기초에 놓이고 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사회적 가치, 생명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문제가 명확히 해명되었다.

그러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왜 우리 시대에 와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문학예술작품의 기초를 이루며 모든 형상요소들을 규제하고 통일시키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작가, 예술인들과 문예이론가들, 평론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제였다.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주제라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사상이라고 하였다. 주제나 사상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중요한 성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기초로, 핵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모든 형상요소들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사상예술적 가치를 제약하는 핵으로 되는 것은 종자이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인 종자가 어찌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는가?

사실상 모든 사물현상은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의 비밀이 완전히 해명된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물질을 막론하고 그 핵을 과학적으로 쉽사리 밝혀 내고 있다. 그런데 왜 문학예술작품의 핵이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해명되었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선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밝혀 내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은 산 인간과 실생활을 그리는 것을 본성적 요구를 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산 인간과 실생활이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그려진다. 문학예술작품의 묘사대상으로 되고 있는 인간과 생활 사회현실은 끝없이 풍부하며 다양하다. 인간의 성격과 생활에는 전세계가 비껴 있다.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매 사람의 비문에는 그저 스쳐 버릴 수 없는 전세계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고 말하였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인간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사상감정과 정신세계가 반영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인간생활고 사회현실이 풍부하게 그려진다. 또한 작품마다 자기의 독특한 형상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작품의 형상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기초에 놓이는 사상적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볼프강 괴테에게 자기의 작품 ≪파우스트≫의 기본사상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시인은 작품의 사상을 정식화하여 표현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파우스트≫의 사상을 밝히려면 새로운 작품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비판적 사실주의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문학예술작품을 얼음산에 비유하였다. 얼음산의 작은 윗부분만이 보이고 기본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물밑에 잠겨 보이지 않듯이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히 들어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산 인간과 실생활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그려진 문학예술작품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으며, 작품의 특성과 생명력, 그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해명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그 누구에게나 납득될 수 있게끔 종자를 규정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다른 한편 문학예술작품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을 도입할 수





도 없으며 실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사유의 힘에 의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밝혀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은 또한 우리 시대에 와서 사상적 알맹이, 핵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해 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원래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는 문학예술작품에는 일정한 사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가 체현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문예사에 기록되어 빛을 내고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내세웠으며 의의있는 사상을 구현하였다.

문학예술은 그 본래의 사명과 본분으로 하여 사상적 알맹이가 들어있을 것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인류가 남겨 놓은 문학예술작품들 가운데는 사상적 알맹이, 핵이 뚜렷한 작품이 많지 못하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 이전 시기에 창조된 문학예술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문학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도 그러한 약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지난 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인간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창작생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그들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참된 생활의 길, 투쟁의 길을 예술적으로 정확히 천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 이전 시기에 창조된 진보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사상예술성에 감탄하면서도 거기에서 참된 삶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사람이 새 생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은 민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새 생활 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임무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처럼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역할문제를 중요하고 날카롭게 제기한 문학예술은 인류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새 사회, 새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민중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낮잠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작품을 통하여 생활의 진리와 투쟁의 양식을 체득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복무하려면 사상적 지향이 뚜렷하여야 하며 제기한 문제가 명백하여야 한다. 보고도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작품들,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가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작품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며 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상적 알맹이가 뚜렷이 박힌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성, 문학예술작품의 내적구조와 존재방식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며 작품의 생명력과 사상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을 명확히 밝혀 내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내기 위한 뚜렷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문학예술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이다.





종자는 형상의 원형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예학적 범주로서의 종자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지려면 종자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함께 그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서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가치를 규정한다.

그러면 종자가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종자의 본질적 속성과 특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종자가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작품에서 예술적 형상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형상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종자, 이것이 진짜 종자이다.

창작가에서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는 것, 이것은 종자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이다. 형상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그 사상예술적 가치를 규정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기초로,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다.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독자들에게는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종자의 본질적 속성과 특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형상에 대하여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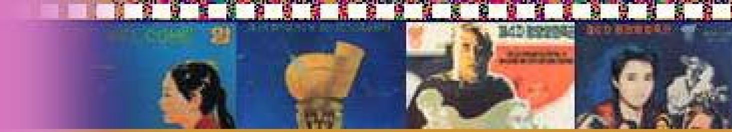
형상이란 문학예술에 고유한 본성과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문예학적 범주이다. 형상을 떠나서 문학예술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학예술은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구별된다. 사람들은 그 어떤 문학예술작품을 대하든지 무엇보다도 형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형상이 잘되였는가, 잘되지 못하였는가, 형상화의 수준이 높은가 높지 못한가,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논의와 분석, 평가는 언제나 여기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귀착된다.

*흔히 문학예술부문에서 형상이란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문학예술이 생활을 번영하는 예술적 형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형상적 형식을 염두에 둔다) 다른 하나는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성격형상, 생활형상, 세부형상 등을 염두에 둔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이라고 할 때 성격형상이나 생활형상 등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총체적인 예술적 화폭,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 자체의 형상적 형식을 말한다.

종자가 형상의 원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작품의 예술적 화폭이 피어날 터전으로, 바탕으로 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을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한다면 종자는 그 꽃을 피어나게 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씨앗으로부터 움이 트고 아지가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종자로부터 형상의 제반 요소들이 자라나고 예술적 형상의 꽃이 피어난다. 종자를 심어 놓지 않고서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형상의 기본테두리를 예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생활에서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벌써 작품에 그려질 형상의 기본테두리까지도 예상하게 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그려질 형상적 화폭의 기본테두리, 윤곽을 예상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다시 말하여 종자는 창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질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이야기줄거리 등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준다. 이것은 종자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형상에 대한 뚜렷한 예술적 표상을 주는 종자야말로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창작가가 잡아쥔 종자가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과 허구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의미에서 예술적인 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작가가 일정한 사상적 입장과 미학적 이상에 비추어 인간과 그 생활을 그려 낸 결과 이루어진다.

작가는 인간과 그 생활을 맹목적으로 그릴 수 없으며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가 생활속에서 탐구하고 발견해 낸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가 하는 데 따라 문학예술작품에서의 형상의 질과 특징이 규정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창작가가 종자를 완전히 잡아쥐었다고 할 때에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장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고전적 명작 ≪피바다≫의 종자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종자에는 작품이 내세운 기본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이 종자에는 일제의 살인적 만행과 야수적 학살이 판치는 참혹한 수난의 피바다, 원한의 피바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적들과 맞서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일 데 대한 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명작이 내세운 기본문제이다. 이 기본문제로부터 일제와는 손에 무장을 잡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의 총체적인 예술적 형상이 흘러나온다. 간도 ≪토벌≫때 남편을 잃고 수난의 가시덤불길을 헤매는 어머니와 그 일가의 피눈물나는 생활정경, 생활의 시련을 거쳐 계급의식에 눈뜨며 아들 원남이를 유격대로 보내며 부녀회장으로서 유격대를 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어머니의 성장과정 등을 보여 주는 형상적 화폭들은 작품이 내세운 기본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종자는 이처럼 그 자체 안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종자는 또한 그 자체 안에 예술적 형상을 이룰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인물성격, 인간관계, 이야기





줄거리 등은 작품을 이루는 형상요소들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조화롭게 통일되어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지고 작품이 창조된다. 이 여러 형상요소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똑똑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창작의 기본요구이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된다.

그것은 종자 속에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가 뚜렷이 구현되어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은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 작품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려고 하는가 하는 창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물성격이나 구성, 생활, 사건 등 형상을 이룰 모든 요소들이 설정되며 그려진다.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떠나서 작품창작에서 형상요소들을 옳게 설정할 수도, 그것들을 옳게 그려 낼 수도 없다. 이처럼 종자는 창작가가 내세운 기본문제,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바탕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원형으로 된다는 것을 종자 안에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기성의 형태로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자가 그 질적 속성과 특성으로 하여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것이다. 이 종자 자체를 놓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구성 등과 같은 형상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뜻깊은 종자에는 인물성격과 구성, 생활 등 작품을 이룰 형상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반 요인들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식물의 종자가 극히 작은 알맹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종자는 간단명료하게 표현되면서도 뜻깊고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자가 작품에서 형사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된다는 것은 종자 안에 모든 형상의 요소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자라날 수 있는 모체로, 터전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지향성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흔히 생활의 진리나 투쟁의 원리 같은 것을 경구와도 같이 고도로 압축되고 집약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종자가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힘있게 담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예로 든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종자를 다시 한번 분석하여보자.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 종자는 1930년대 우리 나라 사회현실과 생활의 진리를 집약적으로 뚜렷이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와 사상, 인물들의 성격, 인간관계, 줄거리 등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마땅히 자위단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자위단과 관련된 생활을 그려야 하며 자위단에 끌려갔다가 뛰쳐나오는 인물들의 생활선, 운명선을 따라 작품이 꾸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자를 핵으로, 기초로 하는 작품에서는 자위단에 들지 않으려는 인물들과 그들을 자위단에 끌어들이려는 인물들과의 심각한 대립과 충돌을 기본갈등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작품은 첨예한 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종자는 작품의 제반 형상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바탕으로, 모체로 된다. 진실로 예술적인 종자는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가능성과 지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





하게 담보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면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종자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상은 문학예술에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며 형상을 떠나서 작품을 생각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은 그 본성으로 하여 형상의 기초로, 바탕으로 되는 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어떤 작품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종자가 있다거나 작품의 종자가 어떤 작품에서나 다 뚜렷하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종자는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에 고유한 것이다. 생활을 왜곡하여 반영하고 고상한 사상을 담지 못한 문학예술작품에는 참다운 의미에서 종자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사상예술적으로 질이 낮으며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내세우지 않은 작품에서는 종자를 노하기 어렵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만이 종자가 뚜렷하다.

지난 시기 일부 문예학자들과 평론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종자는 마치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에만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주장하는 견해를 발로시켰다. 이러한 견해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자이론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시대 문학예술창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된 독창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종자가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한 문학예술작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종자가 뚜렷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자가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작품에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종자는 우리 시대에 창조된 문학예술작품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대에 창조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에도 있다. 우리 시대에 창조되었건, 몇 백년 전에 창조되었건 관계없이 인간과 그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적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는 작품에는 장자가 있기 마련이다. 종자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힘을 가진 문학예술작품에 고유한 질적 속성이다. 인류문예사는 사상적 핵이 뚜렷한 문학예술작품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낡은 투구와 갑옷으로써는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울 수 없다는 것을 사상적 알맹이로 하고 있는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 사랑보다 더 귀중한 것은 동료들에 대한 의리라는 것을 핵으로 하고 있는 스땅달의 중편소설 ≪바니나 바니니≫,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친혈육들 사이에도 금전관계 외에는 그 어떤 관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상적 알맹이로 하고 있는 발자크의 장편소설 ≪고리오영감≫, 개인은 죽일 수 있어도 인류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핵으로 하고 있는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가진자와 못 가진자≫…

문제는 작품의 종자를 얼마나 정확히 규정하는가 하는 데 있다. 종자를 정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작품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밝혀 낸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으로 되는 것이 종자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작품을 옳게 분석평가하는 데서 의거하여야 할 가장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이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있으며 이 이론이 문학예술작품창작을 힘있게 추동하는 창조적 이론으로 되는 주요한 근거가 있다.





종자와 소재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면 종자와 소재의 상호관계를 똑바로 파악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소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작가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잡아야 한다. 소재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 수 있는 생활바탕으로 되는 것만큼 의의있는 참신한 생활소재를 잡는 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전재로 된다.

문학예술에서 소재는 종자를 꽃피울 수 있는 생활바탕이다. 생활소재를 똑바로 설정하는 문제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용어는 재료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재료가 없이는 그 어떤 물건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아무리 재간있는 재봉사도 천이 없이는 옷을 짓지 못한다. 좋은 옷을 짓자면 재봉사의 기능도 높아야 하지만 천도 좋아야 한다. 토스레천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고을 들여야 현대사람들의 미감에 맞는 멋진 옷을 지을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뛰어난 기교를 소유한 작가라할지라도 좋은 소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작품을 훌륭히 써 내지 못한다. 썩은 나무를 가지고서는 조각품을 창작해 내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소재로 되는 것은 생활이다. 생활은 문학예술의 원천이며 모체이다. 생활을 떠나서 문학예술작품이 창조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은 생활묘사로 시작되며 생활묘사로 끝난다. 훌륭한 생활소재에 의거하는 것은 창작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그려 낸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는 것은 창작가들이 뜻깊고 참신한 생활소재에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중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전례없이 높이 발양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 현실은 문학예술작품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소재들을 끊임없이 산생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 우리 시대처럼 문학예술작품에 필요한 생활소재들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준 시기는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현실에 있는 감동적인 사실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있어서 관례처럼 되어 있다.

실제로 현실에 있는 생동한 생활소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문학예술작품에 우리 시대의 혁명적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우리 시대 사람들의 요구와 미감에 맞는 예술적 형상을 창조해 내기도 힘들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생활소재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는 종자에 의거할 때 원





만히 실현될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소재가 종자에 의하여 제약되며 종자에 의거함으로써만 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소재를 똑바로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어떤 경우에나 종자를 잡은 다음에야 소재를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와 동기는 실로 다양하다.

현실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잡아쥔 다음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작품의 종자를 내세울 수도 있다.

박태원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의 창작과정이 바로 그러하다. 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작가는 실재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종자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작품의 소재는 종자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것은 현실에서 잡아쥔 생활 사건들과 사실들이 구체적인 창작과정에서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에 따라 재평가되고 재가공되기 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생활소재를 선택하는 일은 작가가 현실에 있는 이러저러한 사건들, 일화들을 그러모으는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활소재를 선택하는 작업도 전형화의 원칙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종자에 기초하여, 종자의 요구에 맞게 생활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전형화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담보로 된다. 종자에 기초하여 생활소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데 필요한 생활 사건들과 사실들만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종자에 철저히 의거하게 될 때 작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예술적으로 뚜렷이 밝혀내며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생활들만을 취사선택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수 있게 된다. 종자에 기초하며 종자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 작품창작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생활소재들을 전형화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선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많은 작가들이 현실 속에서 수집한 일화들을 넣은 보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가들의 일화보따리는 두툼할수록 좋다. 그런데 일화보따리에 들어 있는 일화들과 자료들이 작품창작에 그대로 이용될 수는 없다. 작가들은 일화보따리 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자료들과 일화들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생활소재가 뜻이 깊소, 저 생활소재가 가치있소 하면서 종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소재나 마구 끌어들이는 짓은 무도회장에 총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생활소재는 종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될 뿐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따라 예술적으로 가공된다.

생활소재가 아무리 가치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작품에 그대로 옮겨 놓거나 나열해서는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을 위하여 현실 속에서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찾아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훌륭한 생활소재가 없이는 작품창작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하지만 작가에 의하여 선택된 생활소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써는 작품이 창작될 수 없다. 아무리 뜻깊고 가치있는 생활소재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곧 예술적 형상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만약 생활소재를 그대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예외없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창작실천이 보여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다.





작가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재가공되지 않는 생활, 형상화되지 못한 생활소재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형상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예술의 법칙이다.

작가에 의하여 선택된 생활소재를 예술적으로 재가공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는 것이 바로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이다.

종자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와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작가로 하여금 생활소재들을 옳게 취사선택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가공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여 창작되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톨스토이가 빈민구제회의 사업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밑에 이 장편소설을 창작하려고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창작의 동기이고 작가는 1888년 자기의 친우인 변호사 코니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의거하여 작가는 처음에 한 순진한 처녀의 정조를 유린한 귀족청년의 정신적 고민과 자책, 그의 정신적 갱생에 대한 문제를 사상적 핵으로 하여 장편소설을 구성하였다. 이런 데로부터 작가는 주인공 네흘류도브가 복잡한 고민과 번민 과정을 거쳐 마침내 카츄샤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으려고 하였다. 톨스토이가 의거한 자료에만 머물러서는 작품을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시대정신에 민감하고 정신의 변증법을 깊이 소유한 톨스토이는 당시의 러시아 사회현실과 민중들의 생활, 재판제도와 형무소에서의 수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깊이 연구분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변경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작품이 의거한 생활소재는 러시아의 부패한 현실과 법률제도를 예리하게 폭로비판하는 사상적 알맹이를 밝히기 위한 견지에서 새롭게 그려졌다.

소재는 작가가 어떤 종자를 내세웠는가 하는 데 따라 이렇게도 가공할 수 있고 저렇게도 가공될 수 있다.

생활소재가 예술적으로 어떻게 가공되고 형상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종자의 요구에 따른다. 어쨌든 생활소재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재편성되고 형상적으로 그려질 때라야만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실천적으로 담보하는 생활적 기초로 될 수 있다.

소재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되는 한편 종자를 꽃피우는 바탕으로 된다. 다시 말하여 생활소재는 종자에 기초하여 선택되고 묘사되면서도 종자를 꽃피우는 형상적 기능을 수행한다.

생활소재는 작가에 의하여 분석평가되고 형상적으로 재구성될 때에만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제를 밝혀 내는 생활바탕으로 되는 것이다. 소재가 종자의 생활적 기초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생활소재는 종자를 꽃피우는 생활바탕이다. 작품의 종자에 기초하고 있으며 종자의 요구에 맞게 설정된 소재는 종자를 생활 속에서 꽃피워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형상창조의 견지에서 볼 때 종자나 소재는 다같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종자이다.

소재는 종자에 의존되고 복종되며 종자는 소재의 도움을 받아 예술적 형상으로 꽃펴난다.





이러한 점에서 소재는 종자와 구별된다.

소재가 종자의 생활적 기초로, 종자를 형상의 꽃으로 피울 수 있는 생활바탕으로 되는데로부터 문학예술작품의 소재를 종자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지난 시기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이 기초하고 있는 소재에 뜻깊은 생활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심오한 예술적 의미를 체현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재에 담겨져 있는 생활내용이 그대로 작품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소재에 담겨져 있는 예술적 의미가 그대로 작품의 형상성, 예술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작가의 주관을 거치지 않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작품의 종자는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와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와 지향, 작품이 내세운 형상적 과업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소재가 아무리 뜻깊고 가치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자체가 곧 종자로 될 수는 없다.

≪혈분만국회≫는 1907년 화란의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대표 이준 열사가 배를 가르고 자살한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

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자가 자기 손으로 배를 가르고 회의장에 붉은 피를 뿌린 사실은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매우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변이다. 이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이런 데로부터 일부 사람들은 ≪혈분만국회≫의 종자를 이준 열사가 만국평화회의장에서 배를 가른 사실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물론 작품의 주인공 이준 열사가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민족적 의분을 누를 길 없어 배를 가르고 피를 뿌린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이 작품의 종자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그 역사적 사실 자체가 작품의 종자로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이 작품이 내세운 사상주제적 과업이 단순히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혈분만국회≫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헤이그밀사사건을 소재로 하여 외세의존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며 나라의 독립은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미깊은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 사상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 작품의 형상적 과제로 되고 있다. 작품의 종자는 바로 이 형상적 과업을 체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혈분만국회≫의 종자는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해 주지 않았다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이 종자에는 작품의 기본문제, 사상주제적 과업이 체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재 자체도 안고 있다.

작품의 종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소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소재 그 자체를 종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반드시 그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문제, 사상적 핵이 뚜렷이 내포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작품의 종자와 소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소재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 수 있게 하는 생활적 기초로, 종자의 생활바탕으로 도기는 하지만 그것이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는 되지 못하며 형상의 바탕으로 될 수도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형사의 바탕으로 되는 것은 오직 종자뿐이다. 이 점에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와 생활소재는 명확히 구별된다.





종자와 주제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학예술에서 종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려면 종자와 주제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제는 종자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작품에서 주제는 종자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데로부터 종자와 주제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작품의 주제를 곧 종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종자와 주제의 상호관계, 주제와 구별되는 종자의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려면 주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예술작품의 주제란 무엇인가?

주제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다.

문학예술에서 주제에 대하여 지난 시기 많은 작가들과 평론가들, 문예학자들이 이러저러하게 규정하였다. 하지만 문학예술작품의 주제를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작가의 목적의식적인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다.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면서 작가는 일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에서 인간과 생활, 사회현실은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를 밝히기 위한 견지에서 그려진다.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떠나서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작품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가에 의하여 작품에 제기된 기본문제, 이것이 바로 주제이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제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 그 하나는 작품이 취급하고 있는 생활영역을 표현하는 경우이고(혁명전통주제, 계급교양주제, 사회주의건설주제 등) 다른 하나는 작품에서 작가가 내세운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를 표현하는 경우이다(당사업에서 군중노선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꾼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청춘남녀들의 참된 사랑에 대한 문제, 사람들을 종교적 환상과 인습으로부터 해방할 데 대한 문제 등).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주제는 작품이 취급하고 있는 생활범위나 생활영역, 생활분야를 표현하는 주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의 구성성분으로서의 주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로서의 주제이다.

주제를 옳게 설정하며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가는 것은 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작품의 주요구성성분으로서의 주제, 작가가 내세운 기본문제로서의 주제는 종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작품에서 종자와 주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작품에서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작품에서 종자와 주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규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종자이다.

종자가 주제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는 것은 작품의 주제가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데서 나타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는 그 자체 내에 주제를 배태하고 있다. 종자의





질적 속성 가운데서 가장 주되는 것은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주제이다. 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구체적으로 잡았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확정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잡은 종자를 놓고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확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무르익은 종자, 예술적인 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종자는 자체 안에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주제는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생동한 표상을 가지기 위하여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혈분만국회≫의 종자는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뜻깊은 종자로부터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기본문제, 주제가 흘러나온다.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해 주지 않았을진대 조선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스스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문제, 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참다운 방도에 관한 문제를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해 주지 않았다는 종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작품의 주제가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 자체가 주제를 배태하고 있지 못하며 주제를 규정해 주지 못하는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주제가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고 제약되는 것은 종자에 의거함으로써만 작품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 데서 나타난다.

작가는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고 깊이 파악한 기초 위에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세워 놓아야 한다.

종자를 떠나서 작품의 주제를 똑바로 세워 놓을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을 하나의 건물에 비긴다면 종자는 건물의 기초에, 주제는 건물의 기둥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종자를 떠나서 주제를 세우는 것은 기초가 없이 기둥을 세우는 것과도 같이 무모한 일이다. 기초가 없이는 기둥을 세울 수 없으며 설사 세운다 하더라도 곧 무너지기 마련이다. 작품의 기초로, 핵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잡지 않고서는 주제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물론 창작가들이 작품의 종자를 내세우기 전에도 자기가 앞으로 창작하게 될 작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기본문제, 주제에 대하여 이러저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주제의 작품을 쓰겠다≫, ≪내가 쓰는 작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주제로 될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현실 속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윤리도덕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삼을 것이다.≫

종자를 내세우기 전에도 창작가의 머리 속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떠오를 수 있으며 그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창작가는 종자를 골라잡기 전이나 생활 속에서 종자를 탐구해 내는 과정에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구상단계에 한한 일이다.

작품에 대한 구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 대한 구상이 완결되고 구체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는 반드시 종자에 기초하여 작품의 주제를 명확히 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작가들이 창작에서 이러한 경향에 빠지게 되면 자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결국 창작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주제가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되는 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주제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창작에서는 작품의 주제를 똑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그것을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





가는것이 중요하다. 작가가 작품에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에 의하여 설정된 주제는 형상적 화폭 속에서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려야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푸는 것은 작품의 사상성을 강화하는 기본고리로 되며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가지 않고서는 작품의 사상성을 녹이는 문제도,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가는 것은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런데 종자는 작가로 하여금 창작과정에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풀어 나가도록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의 핵, 형상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핵, 형상의 바탕으로서 종자는 작품창작의 기본 목표와 방향, 형상화의 과업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종자는 창작으로 하여금 주제를 풀어 나가는 형상작업을 작품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따라 올바로 진행해 나가도록 부추겨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종자에 튼튼히 의거하게 될 때 창작가는 주제를 풀어 나가는 형상작업을 곧바른 길을 따라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종자는 또한 모든 형상요소들을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게 푸는 데 복종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종자에 튼튼히 의거할 때라야 작가들이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 사건, 갈등, 인간관계 등과 같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주제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깊이있게 풀어내는 데 한결같이 복종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형상요소들이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깊이있게 생동하게 그려질수록 주제의 정치적 의의는 그만큼 강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의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종자를 떠나서 작품의 주제를 똑바로 세울 수도 없으며 주제를 의의있게 풀어 나갈 수도 없다. 종자를 잡아쥐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창작의 기초로 삼을 때에는 창작가들이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시간과 정력만 허비할 뿐이다.

이제는 문학예술적 작품의 종자는 주제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자가 그 자체 안에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주제를 내포하고 있고 종자로부터 주제가 흘러나오는 특성으로 하여 작품의 종자와 주제를 갈라보기 어렵다. 지난 시기 이러한 특성을 일면적으로 내세운 데로부터 문학예술 작품의 종자를 주제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발로되었으며 작품의 주제를 종자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작품에서 종자와 주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측면만 일면적으로 보고 주제와 구별되는 종자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종자와 주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일련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다른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종자가 주제와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 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함께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다. 작품의 종자를 형상의 기초, 형상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이와 반면에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되는 주제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표현하고 있을 뿐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작품의 주제는 기껏해야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을 뿐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주제는 그것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아무리 뜻깊고 의의있는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표현되고 아무리 뜻깊고 의의있는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해 내기 위한 가능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작품에서 형상의 제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으로 되지는 못한다.

종자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작가가 주제만을 내세우고 작품을 창작하려는 시도가 번번히 실패를 면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종자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이다. 종자는 그 자체의 질적 속성과 기능으로 하여 작품에서 주제를 규정하고 제약할 뿐 아니라 형상의 제요소들이 뿌리내리게 하고 형상 자체를 꽃피워 낼 수 있게 하는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가로 하여금 형상작업을 확신성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바로 이 점에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주제와 뚜렷이 구별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주제에 비하여 보다 생활적으로, 형성적으로 표현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종자와 주제는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고 그 역할이 같지 않은 것만큼 그 표현형식 서로 같을 수 없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만큼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술적 형상에 대한 예술적 표상을 안겨 줄 수 있게끔 표현된다. 많은 경우 종자가 생활의 진리나 역사의 교훈, 혁명의 원리적인 문제들을 생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보다 형상적으로, 생활적으로 뜻깊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주제는 종자에 비하여 보다 추상적인 논리적 개념으로 표현된다.

실례를 들어보자.

≪꽃파는 처녀≫
종자 : 설움과 효성의 꽃바구니가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가 된다.
주제 : 나라 잃고 수난 당한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종자 :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 있다.
주제 : 조선의 망국사의 근본원인과 피의 교훈에 관한 문제.

≪혈분만국회≫
종자 : 만국평화회의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해 주지 않았다.
주제 : 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의 방도에 관한 문제.

≪한 자위단원의 운명≫
종자 :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
주제 :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조선민중이 나아갈 참된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보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그 표현 형식이 주제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생활적이며 형상적이다. 종자가 사람들에게 작품의 형상적 화폭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펼쳐 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특성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종자가 작가들에게 무궁무진한 창작적 열정과 지혜를 제공하며 그들을 훌륭한 작품창작에로 힘있게 떠밀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이 발로 이 때문이다.

문학예술에서 종자와 주제는 같은 범주가 아니다.





종자와 사상

≪문예창작방법론≫ 종자란 무엇인가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요소들 가운데서 종자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상이다. 문학예술작품이 일정한 사상을 반영하며 사상에 의하여 작품의 성격과 특징, 인식교양적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사상을 떼어놓고 문학예술작품에는 볼 것이 없다. 사상이 없는 작품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유기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다. 사상은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상을 구현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작가의 입장과 관점에 달려있다.

사실주의 문학예술은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을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사상은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며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으로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작품의 종자는 사상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련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 표현되는 특성으로 하여 구체적인 작품에서 종자와 사상을 갈라보기 어렵다. 실제로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을 종자로 보는 경향이 왕왕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파악된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가 사상을 체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사상과 비슷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전환시켜야 한다≫(≪피바다≫의 종자), ≪이등박문은 죽었어도 침략자는 남아 있다.≫(≪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종자)…

보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많은 경우에 사상과 비슷하게 표현되며 종자자체에 뜻깊은 사상이 구현되어 있다. 종자를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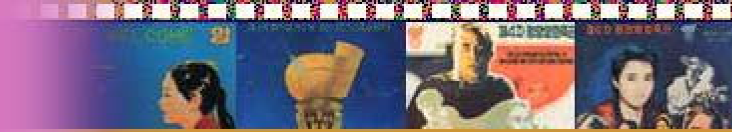
종자가 뜻깊은 사상을 체현하고 있고 사상과 비슷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사상과 같은 범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종자와 사상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일련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각자 고유한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예학적 범주이다.

그러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와 사상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사상과 구별되는 종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종자와 사상은 문학예술작품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 종자가 작품에서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상의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하여서는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인식하게 되면 종자와 사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한 표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술의 내용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상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은 내용의 핵을 이룬다. 사상이 작품의 내용에서 핵을 이룬다는 것은 작품의 사상이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내는 것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작품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은 사상에 의하여 담보되며 사상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데 복종된다. 작품의 내용을 사상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뜻에서 하는 말이다.

작품에서 사상은 내용의 기초에 놓이며 내용 전반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내용의 핵을 이루고 있다. 이와 반면에 종자는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규정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을 제약하는 작품의 핵으로 알맹이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이 내용의 핵을 이룬다면 종자는 작품 자체의 핵을 이룬다. 바로 이 점에서 종자와 사상은 뚜렷이 구별된다.

문학예술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내용과 형식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를 떼어놓는다면 문학예술작품이 존재하지 못하며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작품의 형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술적 형식, 형상적 형식을 말한다. 작품의 내용에서 핵을 이루는 사상은 작품의 예술적 형식, 형상적 형식을 직접 규제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작품의 사상이 형상의 제반요소들을 배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상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내용을 담보해 줄뿐이다.

이와 반면에 종자는 형상의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을 가지고 있는 형상의 원형으로 되기 때문에 문학예술작품의 내용은 물론 예술적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종자와 사상은 작품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작가가 생활 속에서 찾아낸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할 때 그 사상적 알맹이란 작품에 반영된 사상의 핵, 사상의 정수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지난 시기 일부 사람들은 ≪사상적 알맹이≫란 표현 자체에 매달리면서 종자가 사상적 알맹이라는 것은 작품에서 사상의 핵을 이루는 것이 곧 종자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실상 종자를 사상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은 반드시 뚜렷한 지향성, 경향성을 띠기 마련인데 사상의 핵을 규정한다는 것은 실제상 사상 자체의 지향성, 경향성을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은 내용의 핵을 이루는 것만큼 사상의 핵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핵 가운데서 또 핵을 찾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못된다.

작품의 종자를 사상적 알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의 핵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작품에서 형상의 기초로 되며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 종자는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종자가 뜻깊은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의의있는 사상을 체현하고 있는 생활을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종자를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 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않고 작품에 반영된 사상의 핵으로 해석하게 되면 종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며 종자와 사상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데로 떨어지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와 사상의 상호관계를 보지 못하며 사상과 구별되는 종자의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문학예술작품 자체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





석평가할 수 없게 된다.

종자와 사상은 작품에서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존재방식도 서로 다르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그 어떤 경우에나 한 작품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한 알의 종자로부터 자라나듯이 한 편의 작품은 하나의 종자로부터 피어난다. 한 작품에 여러 개의 종자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상이란 사람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지향, 염원의 집중적 구현이다.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그려내는 문학예술작품에는 사회의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이해관계와 지향, 염원이 반영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사상이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장편소설이나 장편영화와 같은 큰 형식의 작품들에는 흔히 작가가 제기한 기본사상 외에 이러저러한 사상들이 반영된다.

≪피바다≫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형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명작에는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민중들의 반항이 있다는 사상도 있고, 제국주의자, 침략자들과는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무장폭동에 관한 사상도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는 반제통일전선에 관한 사상도 있다.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구현되어 있다. 작가는 이 장편소설에서 안드레이 볼콘스끼, 삐에르 베주호브 등 민중들의 형상을 통하여 부패타락한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러시아의 진보적 귀족들의 사상을 구현하였고, 꾸뚜조브의 형상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발전에서 개인과 민중의 역할에 대한 자기의 사상을 반영하였으며, 나폴레옹 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 일어선 각계각층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애국주의 사상을 구현하였다.

사회생활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로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하였던 지난 시기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상이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지난 시기 많은 작가, 예술인들은 세계관의 제한성과 미숙성으로 하여 자기가 창작하는 작품에 일관한 사상을 내세우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계급과 계층의 사상과 지향, 염원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데 머물렀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었다.

제반 사실은 문학예술작품에 꼭 하나의 사상만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상이 작품에서 내용의 핵으로, 기초로 되지만 예술적 형상의 바탕으로는 되지 못하며 따라서 작품의 핵으로 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특징에 기인한다.

사상과는 달리 종자는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한 작품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종자는 작품 자체의 핵으로, 기초로 되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사상과 구별되는 특성은 또한 종자가 작품의 사상을 규정하며 사상이 종자에 의존되는 데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작품의 사상도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므로 종자를 똑똑히 쥐어야만 생활을 통하여 의의있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 낼 수 있다.

작품의 핵으로서의 종자는 사상을 규정하며 사상은 종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은 종자 자체가 작품의 사상을 이룰 요소들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되고 설정된 생활의 씨앗,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





인 종자에는 뜻깊고 의의있는 사상이 체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자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작품에 의의있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

작품의 사상이 종자에 기초하고 있고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또한 종자가 창작가로 하여금 의의있는 사상을 작품에 제기하도록 추동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작품의 핵으로서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갖고 있다.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란 다름아닌 주제이다. 종자가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작품에 의의있는 사상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주제와 사상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설정된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에 내세운 기본문제이며 이 기본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답이 곧 작품의 사상이다.

구체적인 작품에서 주제와 사상은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주제를 떠나서 작품의 사상을 말할 수 없으며 사상과 동떨어져서 작품의 주제를 논의할 수 없다. 작가가 작품에 주제를 내세우는 것은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자는 그 자체가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 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아야 작품의 주제도 바로 세울 수 있고 의의있는 사상도 제기할 수 있다. 창작과정의 견지에서 볼 때 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벌써 작품에 의의있는 사상을 제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사상이 종자에 기초하고 있고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또한 종자가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의의있는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은 언제나 형상적으로 구현되며 표현된다. 작품에는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메마른 사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이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추상적인 논리나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형상화된 사상만이 필요하다. 작품에 사상을 반영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말한다.

종자는 작품에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의 형상을 꽃피우는 바탕으로 되기 때문이다.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물성격과 사건, 인간관계와 갈등, 줄거리 등 형상의 요소들을 옳게 설정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런데 종자는 형상창조에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제반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창조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기반으로, 토대로 된다. 이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을 규정하고 제약할 뿐 아니라 사상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깊이있게 형상화할 수 있게 한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을 규정하고 제약하며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창작실천에서는 종자를 똑바로 잡은 기초 위에서 작품에 의의있는 사상을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종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작품의 생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창작에서 실패와 우여곡절을 가져오게 된다.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와 사상의 상호관계를 깊이 파악하고 작품의 생리에 맞게 창작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종자의 기능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기능

문학예술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형상요소들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옳게 파악하는 것은 그 본질과 특성을 인식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형상요소들의 기능은 작품에서 그것들의 지위와 역할에 의하여 규정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핵의 지위에 놓여 있으며 형상의 원형으로 되고 있는 종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종자의 기능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은 종자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이해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미 종자의 본질과 특징을 서술한 부분에서 종자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앞에서 서술된 부분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종자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표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종자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고 미학실천적 의의가 매우 큰 만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자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종자이론의 정당성과 독창성, 그 거대한 의의와 생활력에 대한 확증으로 될 것이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기능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종자는 생활을 통하여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처음부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바탕을 가지고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종자의 주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에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작품이라야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정서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푸는 것은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창조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실주의문학예술과 반사실주의문학예술이 갈라지는 분기점도 로 사상성과 예술성의 상호관계를 옳게 푸는가 못 푸는가 하는 데 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의 성과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결합된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역사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사상상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염원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구현하려면 창작실천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문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이 근본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작품창작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하는 형상작업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줄기차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되였다.

그러면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하게 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형상작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뚜렷한 목표와 일관된 방향이 없이 그 어떤 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작품의 핵을 이루는 종자는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초로, 바탕으로 되며 작품창작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종자를 똑바로 잡은 기초 위에서만 창작가들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사업을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방향에 따라 확신성있게 벌여 나갈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기초로, 바탕으로 되며 작품창작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 종자의 주되는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그러면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보해 주는 기본요인이기 때문이다.

종자는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해 주는 기본요인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밀접한 결합은 이 양자의 기계적인 배합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다같이 중요하다. 작품의 사상성을 떠나서 예술성을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술성과 동떨어진 작품의 사상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도적인 지위에 놓여 있고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성이다. 사상성에 의하여 예술성이 규정되며 예술성은 사상성에 의존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는 사상성을 구현하는 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예술성을 거기에 따라세우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이처럼 사상성을 구현하는 것은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사상성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에 의하여 규제된다. 작품에서 작가가 제기한 기본문제란 다름아닌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이다.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높은 사상성을 구현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가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하는 과정에서 잡아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가 체현되어 있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못한 종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라고 말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언제나 생활반영의 문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미학적 범주로서의 작품의 사상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작품에 형상적으로 반영된 사회정치적 경향성, 형상화된 사상성을 말한다. 작품에 형상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사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작품에 구현된 사상성은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형상의 깊이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여 작품의 사상성은 형상적으로 표현된 생활의 본질적 내용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기마련이다. 생활의 진리와 본질적 내용이 작품에 형상적으로 구현될 때 그것은 사상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다. 종자에는 생활의 본질이 집약적으로 체현되어 있다.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지 않은 종자는 참다운 예술적인 종자로 되지 못한다.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작품에서 생활의 본질적 내용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종자가 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작품에 높은 사상성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아야 한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될 뿐 아니라 예술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예술성은 문학예술의 본성이다. 이것은 예술성을 떠나서 문학예술작품의 가치와 생명력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술성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작품의 인식교양적 역할과 기능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를 순전히 형식상의 문제로 간주하거나 그 어떤 기교적인 문제로만 고찰하는 편향이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유해롭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에서 예술성은 사상성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게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와 통일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상성과 동떨어져서는 작품의 예술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형상수법이나 표현수단들을 재치있게 쓰는 것과 같은 기교적인 문제가 아니며 또한 그것은 창작가가 잔재간이나 부려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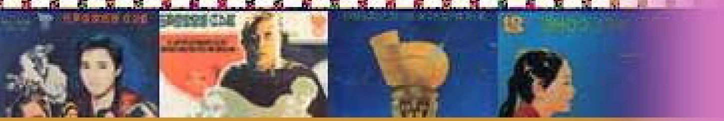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은 일정한 사상적 내용을 생생하고 감명깊게 그려낸 형상화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지어진다.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적으로 어떻게 그려냈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이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예술성이란 개념과 형상성이란 개념이 흔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작품의 형상성을 떠나서 예술성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형상성이 높은 작품은 예술성도 높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는 형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실천적으로 담보해 준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되기 때문이다.

작가가 종자를 발견하였다고 할 때 사상적 알맹이가 박혀 있는 생활로부터 주인공의 성격과 인간관계, 생활범위와 이야기줄거리 등과 같은 기본형상요소들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암시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무르익은 종자라고 할 수 없다.

종자는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고 또한 작가에 의하여 탐구파악된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앞으로 창작될 작품의 기본테두리, 형상적 화폭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생활, 구성, 사건 등 형상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암시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종자는 작가로 하여금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도록 부추겨 준다.

종자는 또한 창작가로 하여금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녀 낼 수 있게 함으로써 작품의 예술성을 담보해 준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떠나서 사실주의적인 작품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사실주의작품이 사람들에게 미학적 감화력을 안겨 주며 그들을 새생활 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견인력을 나타내는 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이며 작품의 예술성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척도의 하나이다. 그런데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요인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 속에 있다. 생활을 떠나서 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작품에 그려질 생활에 대하여 윤곽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만일 종자가 창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질 생활의 범위와 특성, 양상 등에 대하여 암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종자라고 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에게 앞으로 그려질 생활을 확정해 주고 그려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생활을 진실하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게 부추겨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가는 작품에 생활을 기계적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예술적 의도에 맞게 형상적으로 그려낸다. 종자는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므로 종자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작가는 선택된 생활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인 까닭에 창작실천에서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실재적인 바탕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되는 것은 종자에만 고유한 기능이다. 문학예술작품의 그 어떤 성분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력과 탐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무엇을 기초로, 바탕으로 하여 진행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활동이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 시기 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왕왕 발로된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사업을 확고한 바탕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것과 많이 관련된다.





종자는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요인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기능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종자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철학적 깊이는 문학예술작품의 정치사상적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징표의 하나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란 간단히 말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적 심오성, 형상의 심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읽고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인간과 인생에 대하여, 사회와 시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한편의 소설작품이나 시작품,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불의와 허위를 미워하고 인간의 사회적 해방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려는 열렬한 지향과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작품이 생활의 진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는 문학예술작품은 생활의 진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이러저러한 형식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작품에 반영한 생활의 진리나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등이 어떤 경우에나 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자아내는 것은 아니며 독자들에게 깊은 철학적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생활의 진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등이 높은 예술적 형상 속에 구현된 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사색을 안겨 준다. 따라서 철학적 깊이에 관한 문제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적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고 예술적 형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철학적 깊이에 의하여 문학예술작품의 가치와 인식교양적 역할이 규정된다.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데 대한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작품에서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다.

철학적 사유를 떠나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인간과 그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 낸 작품, 뜻깊은 철학세계가 펼쳐져 있는 작품을 절실히 요구한다.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야 우리 시대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킬 수 있고 그들의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할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 철학성에 대해서는 이전시기에도 이야기되어왔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흔히 철학적인 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나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진 작품들을 ≪철학적인 작품≫, ≪철학성이 있는 작품≫으로 불러왔다. 디드로의 소설 ≪라모의 조카≫, 볼테르의 장편소설 ≪깡디드≫, 괴테의 극시 ≪파우스트≫, 발자크의 장편소설 ≪추파≫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8-19세기 서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른바 ≪철학소설≫이라는 장르까지도 출현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철학성≫, ≪철학적 심오성≫이라는 개념이 철학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았거나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특정한 작품들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철학성≫, ≪철학적 깊이≫라는 용어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예학적 범주로 취급되지 못했다. 실제로 독자들은 문학예술의 제반 범주들과 개념들을 전문적으로 서술한 그 어떤 문예이론저서들에서도 ≪철학적 깊이≫라는 범주를 찾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철학성≫, ≪철학적 깊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인 문예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작품들에 표현된 철학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철학적 깊이라는 개념은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나 측면들에 반영된 철학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질적 특성,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규정하는 요인을 표현하는 문예학적 개념이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적 깊이란 종자의 철학적 무게,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창작과정의 총체에서 구현되며 그것은 작품의 정치사상적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징표로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새롭게 밝혀진 철학적 깊이의 개념이 이전시기에 이야기되던 작품의 ≪철학성≫, ≪철학적 심오성≫이라는 개념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정치사상적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 징표인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는 기초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종자 자체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는 작가가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다. 종자에는 생활의 본질이 구현되어 있다. 종자가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지 못한 종자는 예술적인 종자로 되지 못한다. 종자가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에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실제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철학적 사유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문학예술작품에 생활의 본질,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될 때 사람들에게 심오한 철학적 사색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종자는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게 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종자가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것은 종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가 제기하고 있는 인간문제는 예외없이 뜻깊고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이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이다.

문학예술작품에 철학적 깊이를 부여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의의있는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 나가는 것이다.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들의 사색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인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참된 삶에 관한 문제, 사람의 운명개척에 관한 문제이다.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며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등과 같은 인간문제는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을 철학적 사색으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창작가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된 종자는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에 심오한 철학성을 부여하며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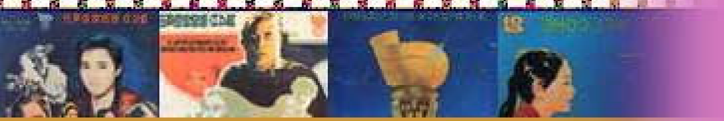
종자가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뜻깊은 사상적 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명제들을 개념적으로 서술하거나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형상적 화폭을 통하여 구현된다.

톨스토이는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의 에필로그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역사철학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길게 서술하였다. ≪전쟁과 평화≫를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때 에필로그에 주어진 작가의 철학사상과 사회역사적 견해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할 것이다. 장편소설의 이 에필로그에 주어진 철학적인 서술은 저자의 철학사상과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장편소설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장편소설의 이 부분이 지루하고 따분한 감을 자아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창작가는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철학가이기도 하다. 막심 고리끼는 장편소설 ≪플림샤긴의 생애≫에서 한 주인공의 입을 빌어 작가들이 철학가 이상으로 작품에서 철학을 잘 풀어 나간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문학예술작품에 철학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학예술작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논리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상적 화폭 속에 예술적으로 구현된다.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철학적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





종자는 그 자체가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기초로, 바탕으로 되는 만큼 예술적 형상을 이룰 요소들과 가능성들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종자는 철학적인 내용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생활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와 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작품에 제기하도록 하며 그것들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 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는 종자의 철학적 문제,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 사회적 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데서 가장 적극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은 철학적 무게를 가진 종자이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철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석윤기의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종자는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를 받아야 혁명대오가 무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편소설의 이 종자는 철학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 혁명대오가 끊임없이 성장강화되려면 혁명가들이 정치적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혁명투쟁에 의하여 검증된 진리이다. 이 진리, 이 종자는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이 뜻깊고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는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예술적 형상,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였다.

이와 같이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반드시 철학적 무게를 가지기 마련이며 철학적 무게를 가진 종자는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기초로, 바탕으로 된다.

그러면 철학적 무게를 가진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성, 철학적 깊이를 담보하는 요인으로 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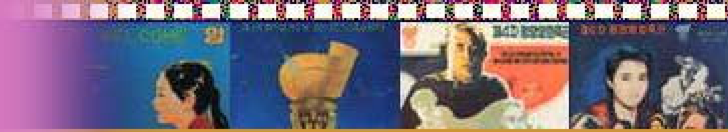
철학적 무제가 있는 종자는 우선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을 확고하게 담보한다. 다시 말하여 철학적 무게를 가진 종자에 기초함으로써만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의 철학적 심오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작품의 사상은 종자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작품에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를 심어 놓지 않고서는 철학적 내용이 담겨진 사상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는 또한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이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해명하도록 추동한다.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심각하게 취급하는 것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적 문제가 예리하게 취급되면 될수록 작품에 심오한 사상적 내용이 구현되며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된다.

그런데 작품에서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고 심각하게 취급하는 형상작업은 종자에 기초함으로써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종자 자체가 뜻깊고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체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형상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는 다음으로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게 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있





게 한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활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생활의 새로운 내용과 뜻을 알게 될 때 깊은 철학적 사색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독창적으로 그려내는 문제를 떠나서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없다.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독창적으로 그려내도록 부추겨 준다.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를 붙잡지 못하고서는 생활을 새롭게 탐구할 수도, 새롭게 형성할 수도 없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하는 데서 기본은 그 본질적 내용과 깊은 뜻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깊은 의미를 정확히 탐구하며 그것을 작품에 뜻깊게 반영하려면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어야 한다.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를 똑바로 잡아쥔 조건에서만 창작가는 생활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탐구해 낼 수 있으며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깊은 뜻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에서 깊이있고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담보해 주는 요인으로 된다.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창조의 필수적인 수단이다.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술적 형상을 창조할 수 없으며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할 수 없다.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개개의 세부들이 아무리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언어구사가 아무리 재치있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목적 실현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는 모든 형상요소들과 형상수단들, 표현수법들을 하나의 목적 실현으로 집중시키고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종자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사상예술적 의도와 주제, 사상적 과업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게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모든 계기들과 고리들에서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려면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된 뜻깊고 무게있는 종자는 작품에 심오한 철학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한다.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기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 된다.

종자는 작가를 창작으로 추동하는 힘이며 예술적 환상과 창조적 열정의 원천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종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을 작품창작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환상은 인간의 사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은 환상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 있다. 환상의 힘에 의거하여 사람들은 새 것을 창조해 낸다. 환상이 없이 사람들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없다.

코페르니쿠스가 수천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여겨 오던 천동설을 뒤집어엎고 지동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환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모든 창조적 활동은 환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환상의 도움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환상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작품창작은 예술적 환상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의 산물이다. 작품에서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거치지 않은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상도 형상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식물의 씨앗은 햇빛을 받아 발아되고 싹이 트며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꽃피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빛을 주는 것이 바로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이다. 예술적 환상의 도움에 의하여 작가는 인간과 그 생활을 미의 법칙에 따라 예술적으로 재창조한다.

예술적 환상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종자가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다. 예술적으로 환상할 줄 모르며 환상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창작가로 될 수 없다. 예술적 환상은 창작가로 하여금 인간과 생활, 사회현실을 미의 법칙에 맞게 형상화할 수 있게 한다. 예술적 환상의 능력이 있기에 창작가들은 인간과 그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여 조화로운 형상적 화폭을 창조해 낸다. 예술





적 환상의 힘에 의거하여 창작가들은 자기가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생활이나 이미 지나간 시대의 생활도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 낸다.

고대 희랍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는 트로이전쟁이 있은 때로부터 몇 백 년 후에 호메로스에 의하여 창작되었다. 호메로스는 예술적 환상의 도움에 의하여 자기 시대로부터 멀리 흘러간 트로이전쟁시기의 사회역사적 사변들과 당대 인간들의 사상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작가, 예술인들의 형상화의 능력과 형상방법, 표현수법들도 다 예술적 환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술적 자질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예술적 환상은 종자에 기초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발양된다. 다시 말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종자는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나래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종자가 창작의 기초로, 형상의 바탕으로 되기 때문이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핵을 이루며 작품창작은 종자를 기초로, 모체로 하여 진행된다. 종자를 똑바로 잡아쥔 상태에서만 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힐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사유가 그러한 것처럼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도 그것이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진행될 때 무르익는 법이다. 구체적인 대상을 떠나서 진행되는 환상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면치 못한다.

창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확정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작품창작의 기본방향과 목표, 형상화의 과업을 대체로 파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잡게 되면 자기가 창작하려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을 가지게 되면 창작가가 창작에 대한 욕망과 흥분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예술적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된다.

종자를 똑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작가가 앞으로 창작하게 될 작품의 윤곽을 그려볼 수 없으며 작품창작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창작가가 아무리 고심하여도 작품창작을 위한 구체적인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혀 나갈 수 없다.

종자는 또한 창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기초하여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혀 나갈 수 있게 한다. 사실주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예술적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수한 공상과는 인연이 없다. 창작가의 진정한 예술적 환상은 현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활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양된다. 현실생활에 발붙이고 진행되는 예술적 환상만이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인간들과 그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도록 하는 추동력으로 될 수 있다.

종자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창작가들이 작품창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예술적 환상을 할 수 있으며 환상 자체를 끊임없이 무르익혀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종자가 뜻깊고 특색있는 생활을 체현하고 있으며 생활을 통하여 형상으로 밝혀질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



다. 창작가가 종자를 잡아쥐었다고 할 때에는 벌써 작품에 그려질 생활에 대하여 윤곽적으로 그려보게 된다. 종자를 잡아쥔 창작가는 자기가 그리게 될 생활을 내다보면서 창작적 구상과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혀 나가게 된다. 말하자면 종자를 잡아쥐게 되면 창작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적 환상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히 결부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히게 된다. 이와 같이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예술적 환상에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극복하고 현실생활에 토대하여 작품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예술적 환상을 실속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종자가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창작적 사색의 원천으로 된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적 환상은 심오한 창작적 사색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창작적 사색의 빈곤은 필연코 예술적 환상의 빈곤을 초래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적 사색을 깊이 하지 않고서는 작품창작에 필요한 예술적 환상을 무르익히지 못한다. 창작가의 창작적 사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부하고 기발한 예술적 환상이 나래치게 된다. 창작은 작가, 예술인들의 사색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창작적 사색과 동떨어진 예술적 환상이란 있을 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적 사색을 깊이 하여야 예술적 환상을 자유분방하게 펼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일화가 생각난다. 발자끄의 창작실로 어느날 그의 친구가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문 밖에 이르렀는데 방안에서는 그 누구에게 호된 욕설을 퍼붓는 발자끄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분명 발자끄가 그 누구와 싸우는 줄로만 여긴 그 사람은 황급히 방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그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발자끄는 원고지를 펼쳐 놓고 혼자서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형상세계에 깊이 빠져들어간 발자끄는 나오는 부정인물의 비인간적 행위에 격분하여 그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는 예술적 환상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은 그에게 순간적으로 그 어떤 ≪영감≫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창작과정에서 창작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발자끄는 창작적 사색을 꾸준하고 정력적으로 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창작적 사색을 떠난 예술적 환상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술적 환상을 작가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우연히 떠오른 ≪영감≫으로 보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다. 그것은 종자가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가가 창작적 사색을 깊이있게 하려면 자기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고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의 집중성은 심오한 사색의 필수적 조건이다.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창작가가 자기의 사상예술적 의도와 미학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견지에서 창작적 사색을 깊이있게 진행할 수 있다. 종자를 똑바로 잡게 되면 창작가가 작품의 기본핵, 사상적 알맹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작품창작의 목표와 방향, 창작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므로 창작적 사색을 중





간함이 없이 일관하게 진행하게 된다. 말하자면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사고의 중간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창작적 사색을 한곳을 따라 끊임없이 줄기차게 벌여 나갈 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이처럼 종자는 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창작적 사색의 요인으로, 풍만하고 자유분방한 예술적 환상의 원천으로 된다.

종자가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에게 창작적 열정을 안겨 주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심장을 틀어잡고 끝없이 불태워 주는 종자를 잡아쥐었을 때 작가는 커다란 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창조적 열정으로 밤낮을 이어가며 창작에 열중할 수 있다. 종자야말로 작가의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떠밀어 주고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의 결정체이다. 작품창작은 작가, 예술인들의 불타는 열정과 기백으로 가득찬 정력적인 사색을 깊이 할 수도 없으며 예술적 환상을 자유분방하게 펼칠 수도 없다.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기백을 안겨 주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작품의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을 틀어잡으며 그들에게 작품창작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열망을 안겨 준다.

창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에는 작품에 제기할 기본문제, 작품의 사상예술적 과제를 장악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작품창작은 확신성있게 진행되며 창작가의 창작적 열정은 불타오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창작적 열정이란 작품창작에 대한 강렬한 지향이며 불타는 염원이기 때문이다.

창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게 되면 작품의 기본골격을 틀어쥐게 되고 앞으로 창작하게 될 작품에 대한 총체적인 구상과 설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창작가는 작품창작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지향을 가지게 되고 창작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받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종자를 똑바로 쥐지 못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고심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창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질 수 없다. 창작적 열정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창작적 환상도 나래칠 수 없으며 따라서 창작은 부진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실로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창작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원천으로 된다. 종자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예술적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하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종자를 똑바로 잡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창작적 열정에 불타게 되고 예술적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되므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내기 마련이다.





종자는 창작가를 속도전으로 추동하는 요인이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기능

종자는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한다.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려면 반드시 종자를 바로쥐어야 하며 작품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잡는 것은 속도전의 선결조건으로 된다.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추동하는 것은 종자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내려면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속도전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창작원천이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속도전이란 창작가가 높은 정치적 자각과 창작적 열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내는 것이다. 속도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혁명적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원칙이며, 우리 시대 작가, 예술인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창작전투의 기본형식이다.

원래 작품창작이란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하여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작품창작에서 성과의 비결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사상과 열정에 있다.

창작가의 사상이 발동되고 창작적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면 작품창작은 거침없이 진행되며 놀라운 성과가 이룩된다.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깊은 창작적 사색과 불타는 열정, 완강하고 긴장한 창조적 노력은 사상할 수 없는 속도를 낳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비할바없이 높일 수 있게 한다. 창작실천은 ≪구상이 잡히지 않소≫, ≪영감이 떠오르지 않소≫ 하면서 창작에서 한 작품을 창작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작품을 빨리 창작하는 것도 좋지만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걸작을 한 편 쓰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고. 이것은 물론 옳은 생각이다. 실제로 인류의 문예사를 더듬어 보면 톨스토이, 발자끄, 셰익스피어, 롤랑, 도스또예프스끼, 챨스 디킨즈 등과 같이 여러 편의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명성을 떨친 작가들도 많지만 일생동안에 불과 1-2편의 걸작을 내놓아 큰 파문을 일으킨 작가들도 있다.

작품을 여러 편 창작하는가, 한두 편을 걸작으로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은 물론 창작가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다. 평범한 작품을 여러 편 창작하는 것보다는 한편이라도 세계적인 걸작을 내놓는 것이 더 유익하고 빛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올망졸망한 여러 개의 야산들을 보는 것보다 웅장하고 높은 하나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가 창작한 여러 편의 작품이 다 걸작으로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의 온 생애를 걸쳐 한두 편의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경우에도 작품창작 자체는 긴장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훌륭한 작품은 창작가의 정력적인 사색과 불타는 열정,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노력의 산물





이다. 심오한 창작적 사색, 불타는 창작적 열정,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 노력은 창작에서 높은 속도를 낳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 작가는 수년 동안 심지어 수십년 동안 작품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작품창작을 시작한 이래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성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작업은 그 어떤 작가의 경우를 막론하고 높은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의 창작은 당사업의 한 고리이며,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으로써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문학예술이 철저히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하고 싶으면 하고 창작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식으로 창작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낼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예술의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민중적인 시책에 의하여 문학예술창작사업이 대중화되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 속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온 사회의 인텔리화가 실현되어 사회의 모드 성원들의 문화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수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견지에서 본 인류의 이상사회적 면모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사회적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가는 현실적 조건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한두 편의 작품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그러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작가나 예술인이 있다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현실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람은 시대와 민중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면 종자가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작품창작을 위한 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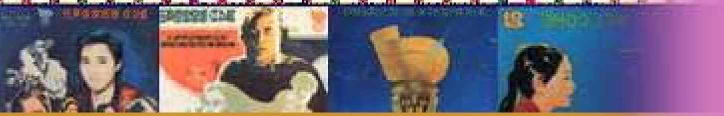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여부는 사람들의 사상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그 어떤 일도 성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더욱이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은 가장 높은 형태의 정신적인 활동이며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사업이다. 작품창작에서 창작가의 사상의식은 결정적이며 규정적인 역할을 한다. 창작가가 사상정신적으로 적극 발동되지 않고서는 속도전을 벌여 나갈 수 없으며 도대체 창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조국과 민중의 위하여 복무하는 작품을 써야 하며 또 쓰겠다는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각오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작품장작에서 속도전을 벌일 수 없으며 훌륭한 창작적 성과를 거둘 수도 없다. 주관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훌륭한 창작적 성과를 이룩하려는 각오를 가진 작가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창작실천에서 속도전을 벌이기는 고사하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못하는 일이 과연 드문 일이겠는가! 주관적 욕망과 열성만으로는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여나갈 수 없다.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은 기초 위에서만 작품을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창작하려는 확고한 사상적 입장과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창작의 전과정에 이 입장과 자세를 철저히 견지할 수 있다. 작가가 종자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것은 창작의 기본고리를 틀어쥐었다는 것을 말하며 작품창작에 대한 신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창작가는 작품을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창작하려는 확고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게 되며





또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게 된다. 이러한 사상정신적 준비를 갖춘 조건에서의 작품창작은 성과를 거두기 마련이며 비록 중도에 이러저러한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인다 하더라도 창작은 곧바른 길을 따라 줄기차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창작적 구상을 무르익힐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작품은 창작가의 정신적 창조물이다. 구상이 없이는 작품창작이 진행되지 못한다. 작품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 창작의 성과가 좌우되는 것이며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무르익히지 않고서는 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여 나갈 수 없다.

종자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무르익힐 수 있게끔 창작가를 추동한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해결하려는 기본문제, 사상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작가의 창작적 구상은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과 특징을 파악하게 될 때 작품창작을 실천적으로 담보하는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구상으로 된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떠난 구상은 작품창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종자를 잡아쥔 창작가는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고 작품에서 해결하려는 사상예술적 과제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며 작품의 윤곽까지 그려보게 되기 때문에 작품창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게 된다. 이처럼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창작적 구상을 무르익히게 함으로써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게 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그려질 생활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창작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탐구파악된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인 종자는 작품에 그리게 될 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암시해 준다. 종자를 잡아쥔 창작가는 앞으로 자기가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의 범위와 윤곽, 생활의 특성에 대하여 뚜렷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를 골라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작가가 아무리 애를 쓰고 구상을 깊이 하여도 자기가 그려야 할 생활을 확정할 수 없게 되며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도 명확히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창작가가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창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창작과정이란 바로 다름아닌 생활묘사과정이기 때문이다. 생활묘사를 떠나서는 창작에서 그 어떤 형상문제도 해결되지 못한다. 종자는 작가에게 작품에 그려야 할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서 형상적 화폭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주는 것으로 하여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게 한다.

종자가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로 하여금 창작의 결과를 명백히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종자를 바로잡아야 창작에서 나서는 사상예술적 문제를 옳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창자그이 결과를 명백히 내다볼 수 있다. 작품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작에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높은 속도가 나오게 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이 높아지게 된다.

어떤 일에서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내다볼 줄 모르며 결과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일에서 신명을 낼 수 없으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히말라야봉에 오른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어려운 모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탐험한 것은 이 산을 정복하면 자연계의 새로운 비밀을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학예술창작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창작의 결과에 대한 파악, 작품을 창작하게 되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이 작품창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가지 못한다.

창작가가 창작의 결과, 형상의 결과를 명확히 내다보게 될 때 창작사업에서 보람과 기쁨,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되고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쏟아붓게 되며 놀라운 창작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반면에 창작가가 작품창작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정과 투지, 인내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자연히 창작속도가 더디게 된다. 창작에서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창작가가 창작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종자는 창작가에게 창작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안겨 준다. 그것은 종자가 작품에서 창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종자가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를 체현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앞으로 자기가 창작하려고 하는 작품의 사상예술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될 때 창작의 결과를 명확히 내다보게 되며 따라서 신심과 패기와 열정에 넘쳐 창작사업을 거침없이 벌여 나가게 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것으로 하여 창작가로 하여금 자기가 창작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표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뜻깊고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은 창작자는 자기가 창작하게 될 작품의 사상예술적 특성을 그려보게 되고 그 작품이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명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며 불타는 창작적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여 창작에서 놀라운 속도를 이룩하게 된다.

종자가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작품창작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제때에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창작조건을 잘 보장하는 것은 속도전을 벌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종합예술창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보장문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제기된다. 영화예술이나 무대예술과 같은 종합예술창조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과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또한 종합예술의 창조사업은 여러 가지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이용된다. 조건보장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작품이 빨리 창작될 수도 있고 느리게 창작될 수도 있다.

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는 종자가 똑바로 선정된 기초 위에서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종자는 작품창작의 기본방향과 목표, 창작의 과정과 특성 등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바로 파악한 기초 위에서만 작품창작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자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그리고 자기의 고유한 기능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제때에 창작해 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종자가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을 확고히 담보하며 종자를 똑바로 잡는 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자의 탐구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지금까지 문예학적 범주로서의 종자의 본질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제는 문학작품의 핵으로,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술할 차례이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려면 창작가들이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한다.

종자를 옳게 골라잡는 것은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작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탐구하는 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종자를 똑바로 잡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종자를 잡는 것이 작품창작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창작의 첫 공정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며, 작품창작은 반드시 종자를 잡은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종자는 문학예술작품의 씨앗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 종자를 심어 놓지 않고 작품을 창작하려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지 않고서는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는 말이 있다. 종자의 질적 속성과 특징에 의하여 작품의 질과 특징이 규정된다. 콩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는 그에 고유한 재배법이 있으며 팥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도 그에 고유한 재배법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자를 심어 놓는가 하는 데 따라 창작의 특성이 규정된다.

좋은 종자를 심어 놓아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다. 실로 종자를 똑바로 잡는 것은 창작의 성과와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 문제이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갖는 종자를 똑바로 잡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무엇보다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종자를 탐구하는 데서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종자선정에서의 이 근본원칙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사상감정과 요구에 맞게 창조되며 민중의 이익과 사상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본성적 요구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문학예술은 민중의 자주위업,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문학예술작품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려면 종자 자체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창작에서 당성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수 있으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종자가 훌륭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그러므로 훌륭한 종자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는 것은 창작가들이 작품의 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다는 것을 말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생활을 정확히 이해하며 생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훌륭한 종자를 잡을 수 있게 한다.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틔워 주며 생활을 보다 훌륭하게 개조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준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똑바로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을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생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여야 한다. 종자란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창작가가 잡아쥔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 속에 있다. 그런데 종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의 씨앗, 사상적 알맹이로서 종자는 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 있다. 생활의 본질을 떠나서 작품의 종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로부터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는 문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생활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제와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정확히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생활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생활은 언제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 본질적인 것, 합법칙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잡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본질적인 것, 합법칙적인 것을 제때에 찾아 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키워 준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나라의 혁명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사람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정확히 가려내고 본질적인 것을 똑바로 찾아낼 수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잡는데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이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또한 창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게 함으로써 훌륭한 종자를 골라잡을 수 있게 한다.

당정책에 의거하여 현실을 대하는 작가만이 생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똑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훌륭한 종자를 잡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반드시 일정한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다.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못한 종자는 인간학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종자를 탐구하는 과정은 현실 속에서 의의있고 뜻깊은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자를 선정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찾아내는 일은 창작가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원만히 실현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앞길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며 사람들에게 생활과 투쟁의 진로를 밝혀 주는 횃불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창작가들만이 현실 속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때에 정확히 찾아 낼 수 있으며 가치있는 종자를 잡아쥘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한 문학예술작품창작의 필수적 요구이다.

높은 정치성, 사상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질적 특징이며 문학예술의 가치와 사상교양적 역할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정치성, 사상성을 떠나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투쟁과 새 사회 건설로 불러일으키는 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문학예술작품에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그 어떤 정치적 개념을 나열하거나 사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치성, 사상성을 높인다고하여 작품에 정치적 내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생활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작품이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구현하려면 정치적 의의가 큰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 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기초로 되는 종자 자체가 정치적 의의가 큰 사회적 문제,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 정치적 의의가 큰 종자를 심어 놓아야 작품창작의 전과정에 당의 의도와 요구를 철저히 견지할 수 있으며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종자를 잡는 것은 종자선정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으



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에 의거하여 현실을 대하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아쥘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종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당정책을 연구한다기보다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작품을 쓰기 위하여 종자를 찾아낸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창작가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창작의 지침으로, 신념으로 삼을 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 의의가 큰 훌륭한 종자를 잡아쥘 수 있게 된다.

만일 창작가가 작품의 종자를 찾기 위한 견지에서만 당정책을 연구하게 되면 그 부문에 대한 정치적 안목과 식견밖에 가질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풍부하고 다양한 현실생활 속에서 작품의 종자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의 생활에서 종자를 찾는 데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훌륭한 종자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의 울림밖에 듣지 못하는 법이다.

어떤 생활에서 종자를 잡기 위하여 그 문제의 각도에서만 당정책을 연구하는 데 그치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할 수 없고 생활을 일면적으로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종자를 똑바로 잡아쥘 수 없다. 바로 이로부터 창작가들이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할 데 대한 필수적 요구가 제기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실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을 한낱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실무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당정책을 자기의 신념으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만 당의 요구에 맞는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잡아쥘 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당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한낱 지식을 얻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입장을 심어 주며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과 방법론을 안겨 준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기초로, 지침으로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연구하는 목적은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 입장과 관점을 체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여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민중의 입장과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며 창작의 전 과정에 걸쳐 당정책적 요구를 확고히 견지하려는 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을 한낱 지식으로만 습득하여서는 올바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을 수 없다. 당정책을 지식으로 습득한다는 것과 그것을 생활의 신념, 창작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자를 똑바로 잡는 데 있어서 창작가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의 신념,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하는 것이다. 생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의의있고 가치있는 종자를 잡아내지 못한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으려면 과학적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창작적 지침을 소유한 작가, 예술인들만이 그 어떤 생활을 대하든지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인식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는 것이 당의 정책적 문제들을 종자로 내세우는 데 귀착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민중들의 생활에서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절실한 문제들을 내세우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의 정책적 문제가 그대로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다고하여 당의 정책적 문제들을 반영한 종자만이 현실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주의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다양하게 그릴 것을 요구하며 작품의 종자도 다양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적 문제를 종자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다른 생활분야에서 종자를 잡을 수도 있다. 종자를 골라잡는 데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적 요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되지만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는다고 하면서 정책적인 문제만 들고나와도 안 된다. 당정책적 문제를 잡지 않고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이나 문화도덕생활분야에서도 당정책적 요구에 맞으며 정치적 의의가 큰 종자를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다.

당정책적 문제를 종자로 내세워야만 반드시 작품의 정치성, 사상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전사회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어느 한 인간에 대해서도 똑똑히 이야기하지 못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한 개인의 생활, 한 가정의 운명을 통하여 전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준 작품들도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골라잡는 문제는 당정책적 문제들을 종자로 내세우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치적 의의가 큰 인간문제,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발견해 내는 것으로 실현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한낱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유일한 창작적 지침으로 삼은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는 종자를 찾아 낼 수 있으며 평범하고 예사로운 생활 속에서도 정치적 의의가 크고 가치있는 종자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을 데 대한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에서 온갖 불건전한 경향을 철저히 막아내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뚜렷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온갖 반혁명적 경향과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 민중의 혁명적 지향이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문하예술은 자체내에 그 어떤 사소한 불건전한 요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온갖 불건전한 경향과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려면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의 첫 공정으로 되는 종자를 골라잡는 데 있어서 혁명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한다.

작품의 핵을 이루며 창작의 전과정을 제약하는 종자가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이라야 당의 노선과 정책에 부합되고 혁명의 이익, 민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 온전치 못한 종자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종자를 심어 놓은 기초 위에서만 창작가는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인물성격과 인간생활을 당정책적 견지에서 설정하고 형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견지에서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당의 노선과 정책에 튼튼히 의거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 속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제때에 잡아쥐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창작은 실패와 우여곡절이 없이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게 된다.

실로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잡는 것은 작가, 예술인들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창작원칙이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아야 한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을 뿐 아니라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 되는 만큼 인간학의 본성에 맞게 당정책을 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는 것은 종자선정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종자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 요구이다. 종자는 작품에서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 종자가 형상의 원형이라는 것은 그것이 형상을 창작해 내는 바탕으로, 기반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며 종자 속에 형상을 이루는 제반요소들과 가능성들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상의 원형으로, 바탕이 된다는 데 문학예술에서의 종자가 다른 부문에서의 종자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형상을 이룰 요소들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되는가 못 되는가를 가르는 본질적 징표이다.

형상을 떠나서 작품을 생각할 수 없으며 형상창조를 떠나서 작품창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작품창작과정은 곧 형상창조과정이며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형상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한다. 작품의 종자는 형상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의의있는 것으로 된다.

창작가에 의하여 선택된 종자는 형상으로 꽃피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꽃 종자는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꽃씨는 흙먼지나 다름없다.

아무리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라 할지라도 형상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만일 작가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상호관계, 구성과 양상같은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상적 알맹이를 쥐었다고 하면 그는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 경제학 같은데서 물어야 할 종자를 잡은 것으로 된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정치사상적 의의와 함께 예술적 의의를 다같이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자를 골라잡을 때 정치사상성만 중요시하고 예술적 의의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 정치사상성이 높아도 예술적 형상으로 풀어 낼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술의 종자로 되지 못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정치 사상성이다. 사실주의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무엇보다도 작품의 높은 정치성, 사상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자의 질적 속성 가운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정치사상성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는 작품의 종자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 정치사상성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종자의 정치사상성만 중요시하고 그 예술적 의



의를 홀시하는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술적 의의가 없는 종자를 가지고서는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다. 종자의 정치사상적 의의와 예술적 의의를 다같이 살려나가야 작품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밀접한 결합을 실현할 수 있으며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작품창작에서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리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적 요구이며 작품창작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려야 뜻깊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할 수 있으며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성, 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다. . 그런데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고 생생하게 그릴 데 대한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는 형상으로 꽃피울 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귄 조건에서만 원만히 구현될 수 있다.

종자는 창작가가 생활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잡아쥔 사상적 알맹이이므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생활묘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생활속에서 꽃피어날 것을 지향한다.

또한 진실로 예술적인 종자, 형상으로 꽃피울 수 있는 종자는 창작가로 하여금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인 예술적 화폭속에서 밝혀 내도록 부추겨 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아야 작가, 예술인들이 산 인간과 실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그릴 데 대한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 할 수 있으며 좋은 형상성 ,예술성을 가진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그러면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창작가에게 앞으로 창작하게 될 작품에 대한 생생한 표상을 주는 종자이다. 종자는 창작가에게 또렷한 예술적 표상을 안겨야 하며 창작가의 예술적 환상과 창조적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창작가를 작품창작으로 고무추동하는 원천으로 되어야 한다.

종자가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려면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어야 한다.

경제건설이나 문화건설과 관련된 당정책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종자는 어디까지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안고 있어야 한다.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적 요구이다.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뜻깊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할 수 없다. 작품에서 형상화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예술성을 높이는 문제도 어떠한 인간문제를 제기하며 인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작품에서 인간 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 나가려면 작품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체현한 종자야말로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인간문제란 다름아닌 사람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며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인류가 창조한 문학예술작품들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사람들에게 크나큰 예술적 흥미와 강렬한 미학적 공감을 자아내는 작품들은 예외없이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한 작품들이다.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 형상이 창조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를 이루는 종자가 예술적 형상의 창조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으로 되려면 반드시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 있지 못한 종자는 진실로 예술적인 종자로 되지 못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의 종자로 될 수 없는 문제들에 매달려서는 훌륭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창작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창작실천이 보여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작가들이 인간 문제보다 생산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간과 그 생활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생산



공정이나 과학기술적 문제를 보여 주는 데 치우치는 결함을 가끔 발로시키는 것은 뜻깊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체현한 종자를 내세우지 못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건설이나 문화건설을 취급하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겨우, 작가, 예술인들은 어디까지나 문화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종자로 내세워야 한다.

생산을 떠나서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만큼 문학예술작품에서 생산활동을 그리지 않을 수 없으며 생산문제를 이러저러한 형태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생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다.

생산문제가 작품의 기본문제로, 종자로 되어서는 안 된다. 작품에서는 마땅히 생산과정에서 제기되는 사람들의 문제를 푸는 데 기본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문제가 작품의 종자로 되어야 한다.

예술적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개성적으로 탐구파악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생활 속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가 개성의 형태로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가 생활 속에 개성의 형태로 존재해 있다면 종자를 잡는 일은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일 것이다.

종자가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은 생활이 종자를 낳는 원천으로 된다는 것이지 종자 자체가 완결된 형태로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 있는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는 창작가의 미학적 이상에 비추어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로 형상의 바탕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참다운 문학예술 작품의 종자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로 된다.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종아, 형상으로 꽃필 수 있는 종자는 작가, 예술인들의 미학적 이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에 의하여 탄생된다. 생활 속에 있는 의의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창작가의 독창적인 미학적 이상에 맞게 재가공될 때 비로소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로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로부터 진실로 예술적인 종자,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의 선진사상과 미학적 이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생활을 자기의 독특한 안목으로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는 능력을 소유할 데 대한 요구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잡을 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문학예술이 창작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창작실천에서 온갖 도식주의적, 기록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도식주의와 기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식주의와 기록주의는 문학예술작품의 형상성, 예술성을 저하시키고 그 사상교양적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킨다. 창작에서 도식주의적, 기록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이다. 창작가들이 형상으로 구현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작품창작에 달라붙게 되면 어차피 도식과 유형에 빠지게 되며 특색있고 감명깊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창작에서 도식과 유형, 기록주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범상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산 인간과 실생활을 감명깊고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그리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에서만이 심오한 인간문제와 뜻깊고 감명깊은 예술적 형상이 흘러나온다.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쥔 기초 위에서만 작가, 예술인들이 예술적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작품에 의의있고 뜻깊은 인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산 인간과 실생활을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려내어 감명깊은 예술적 형상을 창조할 수 있다.

참으로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내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 필수적 담보로 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한다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탐구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잡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종자는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활에서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참신한 형상을 창조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종자는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을 데 대한 문제는 창작의 본성으로부터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창작은 본래의 의미에서 독창적이며 비반복적이다.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작품창작이 독창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나서는 새롭고 참신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특색있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창작에서 아무러한 독창성이 없이 다른 사람이 이미 내놓은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여서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를 변혁해나갈 줄 아는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워줄 수 없고 창조적인 열정을 안겨 줄 수 없다.

인간과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한 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도 다양하게 되어야 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이 모두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인만큼 그것을 반영하는 작품도 구체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생활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작가와 예술인들도 모두 개성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과 감정, 생활체험과 창작경험이 서로 다르다.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며 형상화하는데서 창작가들은 자기식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창작적 개성이 서로 다른 작가들이 엇비슷한 작품들을 썼다면 그것은 생활을 제 눈으로 보고 자기 주장대로 그려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였다면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식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는 100가지작품이 나와야 한다. 만약 창작적 생성이 없이 누구나 꼭같은 작품을 내놓는다면 100편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을 상품을 생산하듯이 형틀로 찍어 낼 수는 없다. 사람들은 판박이 작품이 아니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을 요구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조국과 민중에게, 시대와 혁명 앞에 참답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세상에 이름난 작가, 예술인들은 모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창적인 창작으로써 자기 조국과 민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으며 견결한 투사들이었다.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문학예술의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

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작자는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는 선구자이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탐구자이다.

창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새로운 형상세계를 창조해 내야 한다. 문학예술의 역사는 독창적인 형상세계로 아로새겨져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독창적인 형상, 개성적 특성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해 내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고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독창성을 살리는 문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작품에서 형상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종자에서 흘러나온다. 작품창작이 독창적으로, 비반복적으로 되려면 창작의 기초에 놓이는 종자가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비반복적이고 독창적인 형상의 창조는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고르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는 종자를 새롭고 특색있게 설정하지 않고서는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개성적 특징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은 특색있는 종자로부터 피어난다. 작품에 그려지는 인물성격이나 인간생활이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만큼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내세운 조건에서만 작품에서 인물성격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그려 낼 수 있다. 물론 독창적인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미학적 관점과 예술적 취미 등도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형상 수법과 수단, 기교 등을 특색있게 살려 쓰는 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 개성도 종자를 똑바로 잡는 조건에서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빛을 낼 수 있다.

작품창작에서의 독창성은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에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특색있게 풀어나가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새로운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과업도, 인간과 그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특색있게 그려내는 문제도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은 기초위에서만 원만히 실현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속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술적 형상을 훌륭히 창조할 수 없는 만큼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창작에 앞서 반드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하여 창작적 열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는 데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란 언제나 비반복적인 것이며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색있는 종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닷가의 수억만 모래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금싸래기처럼 희귀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 많으면서도 그 특색을 제때에 올바르게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는 예외없이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다.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생활이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며 투쟁이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이 계속되는 한 인간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생활의 발전과정이란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과정이며 새 것이 산생되고 낡은 것이 사멸되어 가는 과정이다. 생활의 이 변증법적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며 항구적인 것이다.

생활의 변증법적 과정에는 언제나 새로운 싹이 나타나는 법이다. 새로운 싹을 나타내지 않는 생활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긍정적인 것, 진보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대변하고 있다. 생활발전의 이 새로운 싹은 처음에는 극히 미세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보잘것 없는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그것들이 합쳐져 무성한 숲을 이룬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야말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심어 주며 그들의 자주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고 보다 아름답고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도록 사람들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준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독특하게 체현하고 있는 종자를 발견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이 생활 속에 많으면서도 그 특색을 표면에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의 변화발전과정에는 새 것과 낡은 것이 끊임없이 교체된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은 낡은 것과의 투쟁 속에서 산생되며 처음에는 낡은 것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흔히 새로운 싹은 그 자태를 뚜렷이 나타내지 못한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이 어느 부문의 생활에서나 다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특색있는 종자는 바닷가의 수억만의 모래알 가운데서 한 알의 금싸래기를 골라내는 식으로 찾아 낼 수는 없으며 작가, 예술인들이 높은 정치적 식견과 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생활의 본질로 깊이 침투함으로써만 잡아쥘 수 있다.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한 특색있는 종자는 그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생활과정에는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자라나기 마련이다. 새로운 싹은 그 어떤 생활속에서나 다 있으며 따라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도 모든 부문의 생활속에나 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활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며 생활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는 창작가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예사로운 생활속에서도 생활발전의 새로운 싹을 체현하고 있는 깊고 특색있는 종자를 발견해 낸다. 이것은 정치적 예술적 안목이 높고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창작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새롭고 특색이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





활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창작가들이 어떤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어떤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종자를 설정하는 대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아직 그 누구도 형상한 적이 없는 생활에 깊이 침투하는 것은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새로운 생활분야에 침투하지 않고 이미 다른 작품들에서 취급된 생활에만 매달려서는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탐구해 내기 어렵다. 같은 길을 여러 번 걷는 사람은 한가지 자연풍경만을 보기 마련이다.

인류문예사는 새로운 생활을 탐구하며 새로운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력과 투쟁으로 엮어져 있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이 끊임없이 증대되는만큼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리며 작품의 묘사영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생활영역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훨씬 넓어졌다. 민중의 자주적인 투쟁과 창조적인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생활분야가 연이어 개척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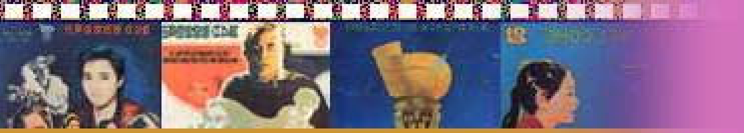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까지만 하여도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사람들의 관할 밖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전대미문의 전진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사람들의 실천활동과 생활영역은 비할바없이 넓어졌다.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도움에 의하여 사람들은 지구 위의 모든 지역을 자기의 활동무대로 삼고 있다. 오늘 지구 위에는 인간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는 곳이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의 생활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분야란 별로 없다.

지난 시기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었던 지역이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의 생활무대로 변모하였다.

오늘 인류는 지구 밖의 세계인 우주세계에까지 자기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쏘아올린 수천 개의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며 우주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나날이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인류는 지구와 우주 사이를 마음대로 왕래하며 우주세계에도 일터를 펼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영역은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문학예술의 묘사대상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나날이 끊임없이 넓어지고 인간생활이 더욱더 다양해지는 조건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새로운 생활분야에 눈을 돌려야 하며 새로운 생활 속에서 특색있고 새로운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을 인간학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창작가들이 종자 선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과 창작의 원리

문예창작방법론

종자의 발견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할 때가 되었다고 간주한다. 종자의 발견은 문학예술창작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다. 문학예술작품의 핵,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작품의 생리적 과정이 뚜렷이 밝혀졌으며 문학예술작품을 생리적 과정에 부합되게 창작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바로 여기에 창작실천의 견지에서 본 종자이론의 거대한 의의와 무궁무진한 생활력이 있다.

원래 생리는 유기체에 고유한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산 인간의 사상감정과 숨결이 차 넘치는 산 유기체와도 같다. 산 유기체로서의 문학예술작품도 자기의 고유한 생리를 가지고 있다. 생리에 의하여 작품의 특징, 존재방식이 규제되며 작품창작의 특성과 합법칙적 과정이 규정된다. 생리를 떠나서 유기체의 특성과 존재방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생리적 과정을 떠나서 작품의 존재방식과 생명력, 창자과정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 과정은 종자에 의하여 규정된다.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가 독특하게 발견하고 심어 놓은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아름답고 참신한 형상의 꽃이 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여 작품이 훌륭하게 되자면 반드시 똑똑한 종자가 있어야 하고 그 종자로부터 이야기의 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어야 하며 그 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 내용이 심오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작품의 생리적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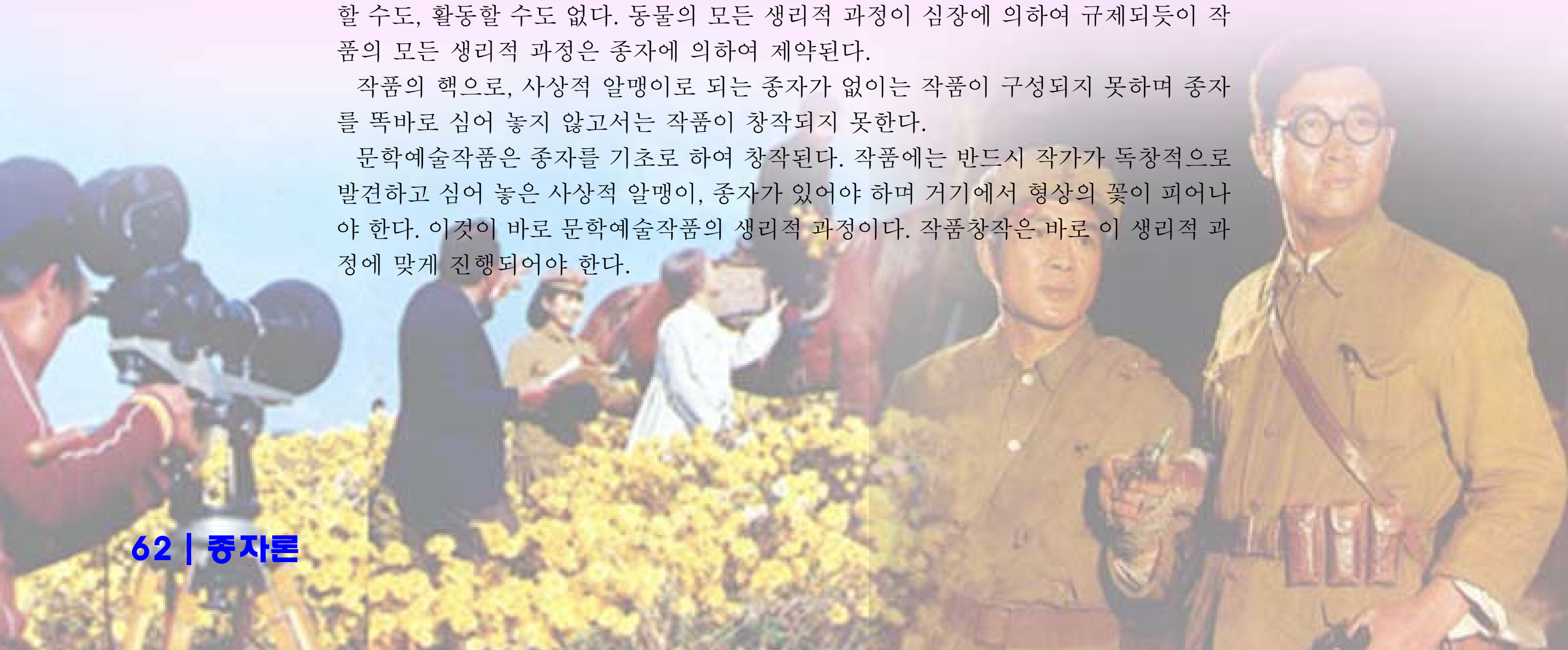
종자로부터 작품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형상의 꽃이 피어나며 의의깊은 사상적 내용이 밝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작품의 생리적 과정이다. 종자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을 규제하는 기초이며 기본요인이다. 종자가 작품의 생리적 과정을 규제하는 기초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종자가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핵이며 바탕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생명력과 존재방식을 규제하는 핵으로 되는 것은 심장이다. 고등동물이나 하등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동물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심장이 없이는 동물이 생존할 수도, 활동할 수도 없다. 동물의 모든 생리적 과정이 심장에 의하여 규제되듯이 작품의 모든 생리적 과정은 종자에 의하여 제약된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가 없이는 작품이 구성되지 못하며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지 않고서는 작품이 창작되지 못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를 기초로 하여 창작된다.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가 독창적으로 발견하고 심어 놓은 사상적 알맹이, 종자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서 형상의 꽃이 피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 과정이다. 작품창작은 바로 이 생리적 과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작품들을 보면 이야기거리도 있고 재미나는 일화들과 세부들도 적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이러한 결함은 종자를 똑바로 심어놓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이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창작하게 되면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지 못하고 형상을 억지로 꾸며내게 된다. 좋은 종자를 똑바로 심어 놓은 기초 위에서만 인간과 그 생활이 전일적으로 조화롭게 그려진 예술적 화폭을 창조할 수 있으며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다.

종자를 핵으로, 바탕으로 하여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지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의 특성에 의하여 창작의 제반 원리들이 규제된다.

창작의 원리란 작품창작에 일관하게 작용하는 이치이다. 창작의 원리에 의하여 창작과정의 특성과 창작의 합법칙적 과정이 규정된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의 원리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 과정의 특성으로부터 모든 형상요소들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설정하고 그려 낼 데 대한 창작의 원리가 흘러나온다.

작가는 종자를 골라잡은 다음에는 그에 알맞은 형상의 기본선을 정확히 틀어잡고 인물, 사건, 일화, 갈등과 같은 모든 형상요소들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하며 심지어 대사 한마디, 장면 하나를 설정하고 처리하는 데서도 종자의 요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형상요소들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설정하는 것은 작품을 생리적 과정에 알맞게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며 창작의 원리이다. 인물, 사건, 생활, 일화, 세부, 갈등 등 형상요소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데 따라 창작의 성과가 좌우된다.

형상요소들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설정한다는 것은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작품창작에 인입한다는 것이다.

산 유기체로서의 문학예술작품은 고도로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기체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는 불필요한 것이란 있을 수 없다.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떼어버리면 그 유기체는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며 활동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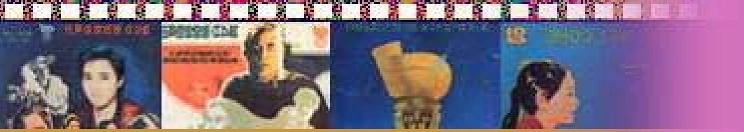
산 유기체로서의 문학예술작품도 다양한 형상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소들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있어도 안 된다. 작품에 불필요한 형상요소들이 끼어들었다는 것은 그 작품이 생리에 맞게 조직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생리에 맞지 않게 조직된 작품이 생명력과 가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에서는 모든 형상요소들이 종자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명작들을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의 작품들은 혁명적 대작의 품격에 맞게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이 폭넓은 서사시적 화폭 속에 그려져 있으며 실로 다양한 형상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인간과 그 생활, 사회역사적 현실이 모두 종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형상의 모든 요소들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종자와 관련이 없는 그 어떤 형상요소들도 찾아볼 수 없다.

작품에 종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인물이나 생활, 사건 등과 같은 형상요소들이 끼어들게 되면 창작이 올바로 진행될 수 없다.

창작가들은 작품이 형상요소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것이 종자의 요구에 맞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심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종자의 요구에 맞는 것만을 작품창작에 이용하고 종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작품을 생리적 과정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창작의 원리이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 과정의 특성으로부터 다음으로 모든 형상요소들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그릴 데 대한 창작의 원리가 흘러나온다.

작품창작에서는 형상요소들을 똑바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설정된 형상요소들을 어떻게 그려내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형상요소들이 옳게 설정되였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잘 그려지지 못하면 창작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훌륭한 작품이 창작되지 못한다. 창작에서는 무엇을 그리는가 하는 문제에 못지않게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문학예술작품을 이루는 모든 형상요소들은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그려져야 한다.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식을 기초지으며 작품의 생명력과 사상예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이다. 종자의 요구를 떠나서 형상요소들을 제대로 그려 낼 수 없다. 종자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형상요소들을 그려내는 것은 작품을 그 생리적 과정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만일 종자의 요구를 떠나서 형상요소들을 그려내게 되면 작품의 형상은 딴골로 흐르게 되고 창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를 실현할 수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인간과 그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져야 하며 모든 형상요소들이 특색있게 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 인간과 실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내는 문제도, 형상요소들을 특색있게 설정하고 형상하는 문제도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거기에 철저히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모든 형상요소들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견지에서 그려내는 것은 작품의 생리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창작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을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창작하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 내기 위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리적 과정의 특성으로부터 또한 작품의 구성을 종자를 기초로 하여, 종자의 요구에 맞게 세울 데 대한 창작의 원리가 흘러나온다.

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가 발견되고 종자를 기초로 하여 작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문학예술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창작적 지침이 마련되였다.

구성을 떠나서 작품을 생각할 수 없으며 구성조직을 떠나서 작품창작이 실현되지 못한다. 작품의 구성을 똑바로 세워야 사상적 내용을 깊이 있고 명백하게 전개할 수 있으며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 줄 수 있다. 구성을 조화롭게 세우는 세련된 기교가 없이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

그런데 문학예술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하려면 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기본요인을 똑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 나가는 기본요인을 똑똑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의 구성을 조직한다는 것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전일적으로 관통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인물들과 생활사건들, 일화들과 세부들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전일체로 배열될 때 산 유기체와도 같이 조화롭게 구성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작품의 구성을 세우는 데서 창작의 기초에 놓이며 모든 형상요소들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을 똑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쥔 기초 위에서만 작가, 예술인들이 형상의 제반요소들을 옳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전일적으로 관통시키는 구성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중심이 있고 요점이 있는 법이다. 중심과 요점이 없이 하는 일은 분산성





과 산만성을 면할 수 없으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작품의 구성을 세우는 형상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작품의 기초에 놓이며 구성 자체를 제약하는 기본요인을 똑바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기본요인으로 되는 것이 바로 작품의 종자이다.

종자를 똑바로 잡은 기초 위에서만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한 형상요소들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하나의 산 유기체와도 같이 전일적으로 조화롭게 엮어 놓을 수 있다.

종자는 작품에서 형상의 기초를 이루며 창작과정을 일관하게 방향짓고 이끌어 나가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창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내세워야 뚜렷한 목적지향성을 갖고 구성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성이 전일적으로 조화롭게 조직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다.

지난 시기 문학예술분야에서는 구성의 짜임새와 입체성, 전일성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벌여 왔으며, 또한 창작실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가예술인들이 많은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 작품을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고 합리적인 견해와 경험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작품의 구성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초로,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이고도 관건적인 문제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작품의 구성조직에 관한 문제는 형상요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열할 것인가, 형상수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기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작품의 핵으로, 형상의 원형으로 되는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 고유한 생리적 과정이 밝혀지고 이에 맞는 창작의 원리가 새롭게 해명되었다. 실로 이것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펼쳐 놓은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을 기초로, 바탕으로 하여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 기간 작가, 예술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작품창작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이 근본문제가 해명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 가운데서 사상적 핵이 뚜렷하지 못하고 작가의 사상예술적 의도가 명백하지 못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대하게 된다.

지난 시기 계급사회에서 사상적 핵이 뚜렷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 주되는 원인은 작가, 예술인들이 작품의 핵을 이루며 창작의 기초에 놓이는 기본요인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종자에 의하여 규제되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자를 뚜렷이 내세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인간과 그 생활, 사회현실을 제아무리 깊이있게 탐구하여도, 제아무리 높은 예술적 기교를 발휘하여도 사람들을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적 지향성이 뚜렷한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없다. 우리가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대가들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그 예술적 형상의 심오성과 풍부성, 인간과 그 생활, 사회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사실주의적 침투, 풍만한 예술적 환상과 높은 창작적 기교 등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사상적 핵이 뚜렷하지 못한 데 대하여 서운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지난 시기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에는 그 사상적 알맹이를 핵으로 하는 종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런데로부터 그들은 작품창작의 기초에 놓이는 근본문제를 똑바로 파악할 수 없었으며 종자에 의하여 규정지어지는 작품의 생리적 과정과 그에 맞는 창작의 원리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

우리 시대에 와서 문학예술작품의 핵으로, 사상적 알맹이로 되는 종자가 발견됨으로써 작품의 생리적 과정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문학예술작품을 생리적 과정에 맞게 창작하기 위한 명확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사상성과 예술성

주체사상 총서 8권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근본원칙은 또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김정일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미학적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은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구현된 것이다. 창작가가 어떤 계급의 세계관과 미학적 이상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대하고 평가하며 그리는가에 따라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성이 규정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높은 사상성을 가진다.

문학예술의 예술성은 인간과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데로부터 가지게 되는 미학적 속성이다 예술성은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는 달리 예술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문학예술의 특성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근본원칙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인식교양자적 기능을 좌우하는 원칙적 문제이다.

문학예술에서는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예술적인 것, 정서적인것과 결합되어야 생동한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할 수 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예술이라야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으로서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관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것은 사상성이다.

계급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계급의 사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되며 계급의 사상의 사회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로 된다.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문학예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성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구호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추상적인 구호와 직선적인 해석으로 예술적 형상을 대치하면 작품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겨질 수 없으며 문학예술이 사람들에 대한 사상미학적 교양의 기능을 옳게 수행할 수 없다.

문학예술에서 사상정치적인 것을 예술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거하여 사회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생활소재를 선택하고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에 올바른 사상미학적 평가를 주며 생활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사상성과 예술성의 올바른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

김정일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데서 어느 한 측면에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사상성이 더 무겁고 예술성이 가볍다든가 예술성이 더 무겁고 사상성이 가볍다든가 하여서는 안된다. 사상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이 옳게 보장되어야 이 두 측면의 결합이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결합한 문학예술작품이라야 현실과 생활을 미적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건전한 예술적 취미와 기호를 키워주며 자주성을 위한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의 옳은 결합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가치와 위력을 높이게 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좌우경적 편향이 없이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우여곡절 없이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려면 사상성과 예술성을 다같이 높여야 하며 문학예술로 하여금 고상한 사상예술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호상관계에서 어느 한 측면만을 절대화하면 좌우경적 편향에 빠져 사회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심각한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무시하고 예술성만 강조하면 우경적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 정치적 사명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계급적 성격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예술성을 홀시하고 사상성만 내세우면 좌경적 편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학예술이 정서적인 감화력을 잃고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예술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로서의 정서적 감화력을 높여나가려면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하여야 한다.

문하예술이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라고 하여 사상성만 절대시하고 예술성을 약화시키면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이 없어지게 되며 창작에서 도식주의와


예술영와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

종자론

추상화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문학예술을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구별하는 특성이 예술성이라고 하여 그것만 내세우고 사상성을 무시한다면 사상교양의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의 혁명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창작에서 예술지상주의에 떨어지게 된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여야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그 미학적 풍격을 높일 수 있으며 문학예술작품의 미학정서적 작용을 강화하고 사상교양적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작품의 종자를 바로 쥐고 잘 가꾸는것이다.

김정일동지가 독창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이라는 산 유기체에 하나로 통일시키고 관통하여 나가는 생명의 핵이 바로 종자이다. 종자는 작품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인 것만큼 작품의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짓는다. 그러므로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아야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기 때문에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작품의 사상예술적 기초로 되는 것이 종자이다. 창작가는 종자를 똑바로 쥐어야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 수 있으며 생활을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할 수 있다.

좋은 종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일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창작가는 심장을 틀어잡는 종자를 잡아야 창작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빠른 속도로 창작할 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다. 작품의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잡아야 하며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언제나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종자를 바로잡은 다음에는 종자에 맞게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키고 심화해 나가면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옳게 설정하고 생동하게 그리며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선택하여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여 사상예술성의 높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또한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철학적 깊이는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과 예술적 가치를 규정하는 사상미학적 속성이다.



혁명연극 《소원》

철학적 깊이란 무엇보다도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말한다.

사상적 내용이 철학적으로 깊이 있고 사람의 운명문제에 심오한 해명을 준 작품이 철학적 깊이를 가진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의 정치사상적 풍격을 규정하게 된다.

철학적 깊이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 높은 정치사상성을 의미할 뿐아니라 형상의 심오성, 고상한 예술성을 말한다. 생활의 본질을 높은 수준에서 예술적으

로 일반화한 작품이 철학적 깊이를 가진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형상의 심오성, 고상한 예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규정한다.

철학적 깊이가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작품전체에서 철학성이 흘러나오도록 작품의 모든 요소를 깊이 있게 형상할 때 실현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를 쥐고 예술적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짓는 기본요인인 것만큼 철학적 무게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아야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작품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야 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는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인 것만큼 작품의 사상이 심오하게 밝혀져야 철학적 깊이가 보장되게 된다. 작품의 사상은 제기한 인간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답이며 생활에 대한 창작가의 태도이며 판단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명을 주는 사상, 다시말하여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밝혀야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된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나서는 사회적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인간문제이다. 사회적 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한다는 것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깊이 있게 푼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정치적으로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철학적 깊이가 보장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야 한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분야를 찾아 형상하며 남들이 취급한 적이 있는 생활영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의의를 밝혀낸다는 것을 말한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여야 작품의 사상을 심오하게 밝힐 수 있고 깊이있는 형상을 창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작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장서를 느끼게 된다.

창작가들이 시대의 본질과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생활을 탐구하고 생활의 새로운 의의를 밝혀야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되게 된다.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깊이 있고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는 생활세부들이 반영되며 세부묘사가 없이는 예술적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고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세부를 깊이 있게, 분석적으로 묘사하여야 작품의 철학적 깊이가 보장된다.

이와 같이 주체를 세우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근본원칙이다.


무용 ≪민족의 핏줄기≫



독창적인 문예이론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김정일령도자의 종자론이야말로 세계문학리론에 메가톤급 충격을 준 독창적인 문예리론이다.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우와 같은 책, 45페지)

≪종자는 소재와 주제,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다.≫ (우와 같은 책, 45페지)

≪종자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 바탕으로 그 가치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우와 같은 책, 47페지)

이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주옥같은 명제들이다. 종자론의 시각에서 볼 때 문예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은 종자로부터 이야기의 줄거리가 뻗고 형상의 꽃이 피여나며 그속에서 주제가 여물고 사상적내용이 뚜렷하고 심오하게 부각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령도자의 종자론이 밝힌 작품의 생리적과정이다.

작품을 유기체에 비유해서 본다면 종자는 거기에 차넘치는 생명의 핵이 된다. 그러므로 작가가 생활속에서 좋은 종자를 골라잡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구비된 훌륭한 작품을 쓰기 위한 일차적작업으로 되고 또 성공의 열쇠가 된다. 종자를 바로 잡음으로써만 뚜렷한 창작적 구상을 가질수 있으며 문예창작을 목적지향성있게 해나갈 결심이 생기게 된다. 좋은 종자를 바로 잡은 다음에는 작가는 각종 인물, 사건, 갈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자에 복종시켜 예술적으로 잘 가공해야 한다. 이상이 종자론의 개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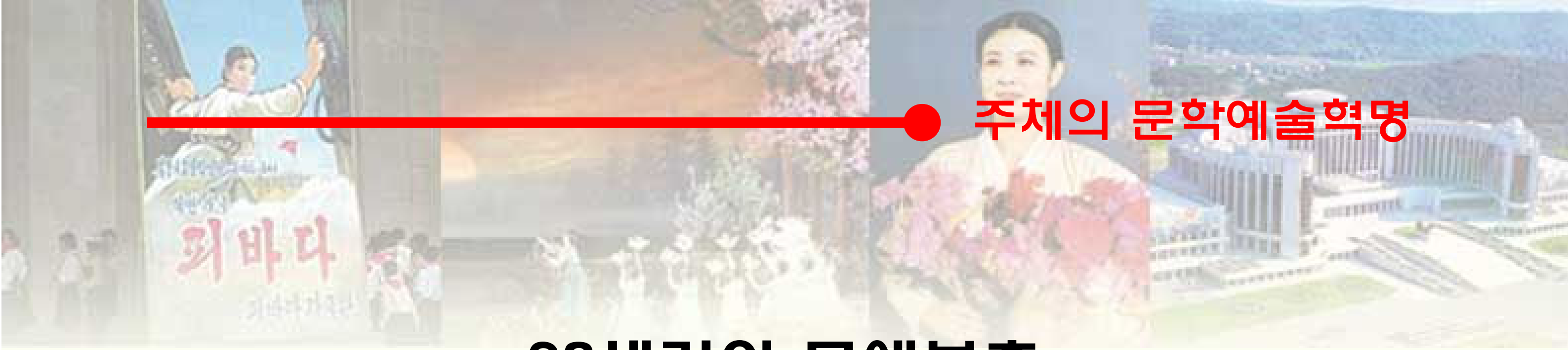
종자론의 창시에 의해 문예리론사상 처음으로 형상의 모든요소를 전일적인 통일속에서 파악하며 문학창작의 싹을 틔우고 형상의 꽃을 피우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비결이 발견되였다.

≪종자의 발견은 그야말로 인류력사상 불을 발견한데 비길 수 있는 ≪문예력사상 불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로동자문학협의회≫) 이것이 **김정일**령도자의 종자론에 관한 편견없는 민족의 평가이다.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촬영 현지지도



20세기의 문예부흥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한 이북 예술의 개화상을 가리켜 ≪20세기 문예부흥≫이라고 평한다.

14−15세기 이딸리아에서 시발된 르네쌍스는 봉건적,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항한 인간성의 발견과 개성의 발휘를 위한 문화운동이였으며 주로 문학, 미술, 조각과 건축분야에서 개화된 문학예술의 재생운동이였다. 그러나 서구문학은 르네쌍스이후 4−5백년이 흘러오는 사이에 황금이라는 우상에 중독돼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였다.

그러면 인류의 예술은 어떻게 될것인가? 전인류가 우려하는 가운데 20세기중엽 동방의 조선에서 전혀 새로운 문화혁명의 포성이 울렸다.

이북의 문화혁명은 재생(르네쌍스)이상의 고차원적신생(新生)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시다.

그분께서는 ≪주체문학론≫, ≪영화예술론≫, ≪음악예술론≫, ≪무용예술론≫, ≪미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건축예술론≫등 수십권에 달하는 문학예술총서를 내놓으시여 주체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를 가져오게 하고 인류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이같은 위대한 문예리론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북의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미술, 무용, 건축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혁명이 일어나고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징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우리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 . .

세인들은 개화만발하는 이북의 예술을 두고 세계최고봉의 예술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인류문화사를 돌이켜보면 하나의 큰 구획을 이룰수 있는 정신문화를 창조하는데 수백년이 걸렸다. 그러나 인류가 경탄해마지 않는 이북에서의 ≪20세기문예부흥≫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것도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문학예술의 전반을 포괄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금자탑인 것이다. 그분의 향도밑에 창조된 주체문학예술은 오늘 세계진보적 문학예술의 원류(原流)로 되고 있으며 새 세기 문예부흥에 선풍을 안아다 주고 있다.

일본예술원 회원이며 작가인 고이즈이 유즈루는 이북에서 이룩된 주체문학예술의 번영을 두고 ≪위대한 예술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미학의 대가가 계신다.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 위대한 지도자가 20세기 예술의 최첨단을 걸어나가면서 세계민중들에게 참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길을 밝혀주고 계시는 탁월한 **김정일**령도자이심을 알게 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



수령형상창조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그분께서는 주체문화의 개화발전을 위해 우선 문학작품에서 수령형상창조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빛나게 해명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4페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을 형상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제였다. 그런데 수령의 형상창조에서는 참고할만한 경험도 없었다.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제기되는 원칙과 미학실천적문제들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해명되였다.

그분께서는 우선 수령의 형상을 밝고 정중히 해야 한다는 미학적원칙을 제시하고 창작가들이 창작실천에서 그것을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가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송가들으 사상적내용과 선율형상에서, ≪조선의 별≫을 비롯한 혁명영화들의 장면과 대사, 음악형상에서 숭엄한 정서적색채가 흘러넘치도록 하나하나 가르티고 이끄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민중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형상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수령형상작품에서 언제나 근로민중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면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잘 형상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분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 언제나 수령이 지닌 숭고한 인간애, 고상한 인간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생동한 예술적화폭들을 통해 위대한 인간의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그려낼 것을 강조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들과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고 그것을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훌륭히 구현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수령의 형상창조가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문학예술건설의 독자적인 령역으로 개척되게 되였다.



≪노동계급의 맹세≫

공산주의인간학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김정일령도자의 탁월한 문예사상의 중핵에는 언제나 인간 즉 민중이 살아있으며 그것이 그분의 위대성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그분께서는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창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 (≪**김정일**선집≫ 3권, 43페지)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우와 같은 책, 34페지)

공산주의인간학, 주체의 인간학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간에 대한 문제에 명백한 해명을 주고 있다.

지난시기 문학을 인간학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철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했던 까닭에 그것은 다만 문학이 인간생활을 묘사하고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 일반적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본성이 주체사상에 의해서 비로소 과학적 해명을 보게 됨으로써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즉 어떠한 인간을 그리는 것이 문학의 본령인가 하는 문제에 명백히 대답할 수 있는 열쇠가 제공되였다. 주체의 인간학은 인간일반이 자주적인 인간,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를 문학의 근본문제로 내세운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인간학의 원칙적요구로 상정시킨다.

참으로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를 기본으로 하고 인간의 생활과 투쟁을 묘사하도록 한 **김정일**인간학은 민중의 자유와 해방,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의 종소리이며 민중적 문예창조의 방향각을 제시한 력사의 라침판인 것이다.



≪청춘이여, 앞으로≫



영화예술혁명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북의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뚫은 첫 포성을 영화예술부문에서 올리시였다.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해 나가는 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우리가 반드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우와 같은 책, 31페지)

그분께서는 영화예술의 인식교양적기능과 문학예술전반에서의 영화예술의 위상에 관한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며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보편화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화창작에 영화문학(씨나리오)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영화문학은 영화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영화문학창작은 영화창작의 첫 공정이다. 우리시대의 요구에 맞게 영화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화문학분야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야 하며 영화창작에 영화문학창작을 확고히 선행하고 영화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영화문학에 대한 관점이고 립장이다. 이와 함께 그분께서는 연출가가 창작단의 사령관이 되어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창조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밀고나가는 주체의 연출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연출가로 하여금 모든 창조성원들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영화창작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혁명적인 창조방법을 세우시였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배우들의 연기력향상에도 큰 관심을 돌리시면서 촬영, 미술, 음악 등 영화예술이 필수적형상수단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영화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였다.


예술영와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

이북에서 영화예술은 예술의 성좌를 이루었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깊은 사색과 아낌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분께서는 하나의 씨나리오를 놓고 작가와 5-6시간씩 마주 앉으시며 작품을 분석하고 시정해주는가 하면, 예술형상의 가치는 백에서 백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줄줄 알아야 한다고 작가들을 가르쳐 주시였다. 또한 그분께서는 폭양이 내려쪼이는 야외촬영장에 나가시여 한 영화장면의 진실성을 살리기 위해 고심하기도 하시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령도자의 영화예술에 대한 정력적인 령도는 영화 그자체보다 민중의 사상혁명에 목적을 둔것이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의 영화예술혁명은 곧 정치였고 민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과정이였던 것이다.

가극혁명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 가극혁명은 감탄할만한 경이였다.

≪가극예술의 사회력사적제약성과 사상예술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주체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형의 가극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극예술에 대하여≫, 4페지)

김정일령도자의 가극혁명의 요체는 절가와 방창이다.

오페라는 16세기말 이딸리아의 피렌체에서 출현하였다 하나 1600년 프랑스 앙리6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 공연된 것이 사실상의 첫 오페라였다. 이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오페라에서 기본구성인 아리아와 레시따찌브는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였다. 그러나 20세기중반에 와서 이북에서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절가와 방창이 발견됨으러써 4백년의 전통을 가진 이성역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오페라에서 아리아와 레시따찌브를 없애고 절가화! 이것은 가극을 광범한 민중을 위한 예술로 전환시킨 일대 혁명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서구오페라의 꽃이라고 말하는 아리아를 밀어내고 절가를 도입하시였다. 아리아는 오페라의 귀족적성격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멜로디가 지나치게 기교적인고 까다롭다. 오늘 민중이 주인된 우리시대에 와서 가극도 귀족사회에서 풀려나와 평민화, 민중화되여야 한다. 이것이 가극에 대한 시대적요청이다. 그렇다면 가극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민중적인 음악형식을 기본수단으로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중에 의해 창조되고 다듬어져온 절가를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훌륭하게 실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가극의 꽃으로 왕좌에 올라앉은 절가는 민중적이고 아름다우며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다. 비유하면 아리아나 레시띠씨브가 산문적이라면 절가는 시적이다. 20여년전 **김정일**령도자께서 가극형명의 팡파레(시작을 알리는 트럼베트 나팔소리)를 울린 혁명가극 ≪피바다≫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나날에 가사를 절가화하여주시는 본보기를 보여주시였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도
그 어딜 가나 피바다에 잠겼구나
심심산골인 우리 마을에도
왜놈들이 몰려와
칼로 찍고 총을 쏘며 불태우는 바람에
아들손주 여섯을 잃고 이 길을 떠났지여
그 로인도 원통하게 딸자식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났다오


혁명가극 ≪피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 가사가 줄을 떼여놓았으니 시처럼 보이지 줄을 쭉 련결해놓으면 그대로 산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다음과 같이 고쳐주시였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건만
어딜 가나 피바다에 잠겨있구나
왜놈들이 우리 마을 불태워버려
아들손주 잃고서 이 길을 떠났소
그 로인도 왜놈들의 총칼에 찔려
원통하게 이 세상을 떠나갔다오

이것이 절가가. 지난날 절가란 단순하고 예술성이 없고 세련되지 못한 형식이라고 비평되고 천대받아왔다. 이처럼 음악의 령역에서 버림받은 절가를 다시 소생시키시여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승화시키신 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가극에 방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시였다. 가극에 방창을 도입한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노래가 아닌 무대밖의 성악수단을 무대형상에 받아들여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날 가극에서 음악형상수단으로서는 무대우에서 부르는 등장인물의 노래와 무대아래에서 연주되는 관현악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무대우의 노래에만 매달려있던 서구식 가극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방창에서 찾으시고 가극에 방창을 받아들여 하나의 형상수단으로 되게 하시였다. 방창의 도입으로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주체의 가극은 어떤 생활도 다 반영할수 있는 위력한 예술형식으로 되였다. 그분께서는 또한 가극혁명을 수행하시면서 인간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무용예술을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 도입하도록 하시였고 가극의 무대를 흐름식으로 립체화하도록 하시였다.

이북에서 개막된 새형의 피바다식가극의 새 시대는 바로 **김정일**령도자의 예술적천재성과 금자탑의 공적을 노래하고 있다.



혁명가극 《피바다》



무용표기법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문학, 영화, 가극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교예등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우리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류예술사에 특기할 공적을 이룩하신 것중의 중요한 것이 무용표기법을 창제하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이북 만수대예술단의 무용예술의 실패를 분석하신후 무용표기법에 관한 연구과제를 제기하시고 그 부문에 조예가 깊은 예술인들과 과학자들로 무용표기법 연구집단을 결성해주시였다. 그리고 자모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부호들을 여러개의 형태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무용동작을 표기하도록 그 방도를 명시해 주시였다. 우리가 만드는 무용표기법은 여러 가지 손동작을 다 표기할 수 있게 하며 다른 나라의 춤도 표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북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제를 위한 연구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시였다.

그분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 1987년 2월 이북의 예술인, 과학자들은 문자들이 자모결합식으로 된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다. 이 표기법은 무용수의 무용동작은 물론 무용예술의 모든 형상적요소들을 음악의 악보처럼 종합적으로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한 것으로 무용예술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무용표기법은 15세기 중엽에 스페인 사람인 세르베라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된이래 500여년의 력사를 기록하면서 나반식무용표기법, 에쉬콜–왓치만무용표기법, 베네쉬무용표기법등이 나왔지만 미숙성과 제약성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무용예술의 실천에 도입되지 못했고 무용표기법의 창조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력사적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이북의 무용예술부문의 과학자, 예술인들을 무용표기법의 창제에로 부르시고 그들의 지혜와 열정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성공에로 이끌어주신분이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시다.



무용 ≪전사의 양심≫



건축은 종합예술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이북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주체적인 건축미술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건축예술분야에서도 세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명시하시였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다.

≪건축은 조각과 벽화, 장식, 공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문예술의 종합으로 이루어진다.≫ (≪건축예술론≫, 100페지)

예술중에서도 종합예술인 것은 훌륭한 률동과 조화, 구성과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대정신과 당대 인간의 사상정신적특질, 미적감정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오랜 전문교육과 창작실천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건축의 묘미와 지식을 터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 천재중의 천재이시다. 그분께서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시고 모든 건축물에 ≪우리 식≫의 건축예술을 구현하신다. 그분께서는 대기념비적창조물에서 첫째,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구현하며 둘째,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셋째, 모든 창조물이 훗날에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재부로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신70회를 맞으며 건립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건설할 때 였다.

그분께서는 주체사상탑은 민족적형식의 석탑으로 하고 그 높이를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1백 70케터로 정해주시였고 그리고 70단으로 된 화강석탑신우에 봉화를 올려놓으며 탑신에는 ≪주체≫라는 글을 금문자로 새기고 탑앞에는 조선로동당의 마크를 높이 치켜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3인군상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탑 좌우에는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여러주체의 군상들을 배치하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평양의 개선문을 세계적으로 제일 높고 크게, 독특한 민족적형식과 립체성을 가진 개선문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높이를 60메터로 정해주시였다. 그 구성은 툇마루형식의 기단을 닦고 4개의 주춧돌우에 4각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4개의 홍예문을 만들고 웃부분에는 4각형탑식으로 된 지붕들을 3층으로 얹어놓도록 하시였다. 앞뒤면 량쪽 기둥벽우에 부각하게 된 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만경대를 떠나신 때로부터 개선하신 때까지인 ≪1925≫, ≪1945≫로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탑은 2년, 개선문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높이에서나 건축형식과 규모, 사상성과 예술성에서 세계에서 둘도 없는 대기념비로 거연히 일어서게 되였다.



개선문

주체사상탑은 지금까지 세계제일의 석탑이라고 말하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기념탑 555피트(약 166m)보다 더 높은 세계제일의 기념비이다. 그리고 개선문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착공돼 완공까지 30여년이 걸렸다고 하는 높이 50메터의 빠리 에토왈개선문을 압도한 단연 세계최대의 개선문이다.

이같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축물중의 하나가 바로 평양 중심부인 남산재의 거연히 들어앉아 하늘을 가리며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이다. 인민대학습당은 기러기떼가 푸른 하늘로 줄지어 날아가는 듯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청기와합각지붕, 민족적 미감을 드러내놓는 둥근벽기둥 등 전통적풍치가 짙게 풍기는 민족건축의

백미이다.

이 인민대학습당은 연건평 근 10만m² 에 강당, 강의실, 록음실등 600여칸과 3천만부의 장서 그리고 각종 현대적봉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5월1일 경기장, 청춘거리의 현대적인 경기관들, 지하궁전으로 불리는 평양지하철도, 현란한 분수공원안에 장중한 건축미와 금강산 8선녀가 하강하는 듯 황홀한 실내장식이 조화된 만수대예술극장, 건축미와 률동미를 자랑하는 빙상관, 창광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이 모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김정일**령도자의 독특한 주체의 건축미학사상의 정화이며 그분께서 민중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은정의 산아들이다.

이북의 대건축물들은 어느것이나 대결작이며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쟝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이북에서의 건설의 특징을 **김정일**식건설이라고 칭송하였다.

일찍이 로마의 전성기에 카라칼라극장과 콜로세움경기장이 일떠서 로마의 위용을 과시하더니 오늘 이북에서는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과 5월1일 경기장등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이 련이어 일어서 주체조선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빙상관


평양지하철


능라도경기장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개화발전

현대조선역사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민족문화 유산을 비판적으로 이어받으면서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감정을 반영하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과 예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우리 나라 작가, 예술인들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한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우리 혁명의 이익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에 맞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어 사호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학예술 부문앞에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대한 과업이 나타났다.

>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문학예술부문앞에 나타난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60년 11월에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일꾼들과 한 담화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와 1964년 11월에 문학예술부문일꾼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데 대하여≫는 주체적인 혁명적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 고전적 노작들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밝히시고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학예술의 새로운 창작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문학예술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문학예술을 민족적 바탕에서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튼튼히 서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작가, 예술인들은 언제나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노동계급적 선이 서고 자기 인민의 감정에 맞으며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으며 온갖 반동적 문예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또한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을 군중적 지반위에서 발전시키고 문학예술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며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활동과 광범한 대중적 문예활동을 옳게 배합하였다.

당중앙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찬란히 꽃피우기 위하여 공산주의 인간학에 관한 이론과 종자론을 비롯한 수많은 독창적인 사상이론을 내놓으므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창조발전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주었으며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는데 대한 탁월한 문예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문학예술은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1970년대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특기할 성과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전적 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영화와, 가극, 소설과 연극 등에 옮기는 사업을 빛나게 수행한 것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을 영화와 가극 예술의 특성에 맞게 옮긴 작품들이 나왔으며 이것들은 국내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을 위하여 우리 영화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고 영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게 되었다.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가극에 옮기는 창조과정을 통하여 새형의 가극 ≪피바다≫식혁명가극이 창조되고 가극혁명의 시초가 열렸으며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하며 그밖의 가극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극혁명의 빛나는 결실들이 연이어 이룩되었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절가화된 노래와 우리 식의 방창과 관현악,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무용과 흐름식 입체미술로 엮어진 새형의 혁명가극이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에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가 창작됨으로써 혁명소설의 본보기가 마련되었으며 혁명적 문예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실천적 모범이 이룩되었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이 연극무대에 성과적으로 옮겨짐으로써 연극혁명이 일어나고 실현되게 되었으며 ≪성황당≫식혁명연극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은 현실을 실생활 그대로 실감있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무대형상, 다시 말하여 입체적인 무대형상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연극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폭넓고 심오하게 학습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과 혁명화과정을 그리는데서 제기되는 제반 요구와 그 구현의

원칙들과 방법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드는 혁명적 작품과 혁명적 대작을 본격적으로 창작하게 되었다. 특히 작가, 예술인들은 **김일성**을 형상하는 창작사업에 자기들의 온갖 창조적 열정을 다 기울였다.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예술적 화폭에 집대성한 총서 ≪불멸의 역사≫ 가운데서 장편소설 ≪1932년≫과 ≪혁명의 여명≫, ≪고난의 행군≫, ≪백두산 기슭≫, ≪두만강 지구≫ 등과 장편소설들인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 서사시 ≪우리는 태양 **김일성**원수≫ 등 기념비적 문학작품들과 ≪누리에 붙는 불≫,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백두산≫, ≪조선의 별≫ 과 같은 기념비적 혁명영화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음악무용이야기 ≪낙원의 노래≫

또한 삼지연, 왕재산을 비롯한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김일성**의 영상을 모신 기념비적 대조각작품들과 회화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문학예술은 **김일성**에게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운 전형적인 주인공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훌륭한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음악무용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우리의 음악은 민족적 바탕위에서 현대적 미감에 맞는 주체적 민족음악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명곡창작에서 획기적 미감에 맞는 주체적 민족음악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명곡창작에서 획기적 전환이 이룩되었다. 그리하여 송가작품인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비롯하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동지애의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곡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음악분야에서는 또한 ≪낙원의 노래≫와 같은 음악무용이야기, 음악무용서서시극, 합창과 관현악 등 새로운 음악예술형식들이 독창적으로 창조발전되었으며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우리 식의 악기편성법과 노래를 아름답고 유순하게 부르는 우리 식의 창법이 완성되었다.

무용분야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무용이 꽃펴났으며 우수한 무용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키춤≫, ≪사과풍년≫ 등과 같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명작들이 창작완성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무용작품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

미술분야에서도 조선화의 전통적 화법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채색화로 발전시켜 현대적 조선화가 우리 미술의 주류를 이루게 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화의 우수한 특성이 모든 미술작품에 구현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술은 민족적 특성이 풍부한 주체적인 혁명적 미술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교예도 기형적이며 비정상적인 온갖 이색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체육문화적으로 조화되고 사상예술적으로 건전한 사회주의적 민족교예로 발전하였으며 ≪공중날



조선화 《쉴참》

기》, 《널뛰기》, 《바줄타기》를 비롯한 우수한 교예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 노동과 새생활창조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주체예술은 최근년간 아시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 경탄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평양만수대예술단, 조선인민군협주단, 평양예술단, 평양교예단 등 여러 예술단들이 중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자이르, 알리,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수십개 나라들을 방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대절찬속에 공연하였다. 우리 나라의 예술공연을 본 세계 수많은 인민들은 《세계 1등급의 예술》, 《세계 혁명적 예술의 최고봉》, 《인류예술의 미래를 대표하는 예술》, 《세계 예술의 기준이고 표본이며 20세기 예술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서, 과학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었다.





민족무용 《키춤》



창조와 변혁을 위한 독창적인 종자론

구국전선 / 김 세 철, 주체90, 6월 21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종자론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북의 문학예술분야를 몸소 영도하시면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창조의 이론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이북에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힘있는 존재로 육성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것을 짓부수고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자면 먼저 그 수행자인 근로민중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워야 했다.

혁신적인 문학과 예술작품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정신무장시키며 그들을 창조와 변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그런데 당시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줄만한 무게있는 작품들이 많지 못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키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천리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문학예술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시고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로 문학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시었다. 이 과정에 역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종자론이 창시되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선참으로 이북식의 새로운 영화혁명을 일으킬 것을 구상하시고 먼저 작품에서 종자를 발견하시는 것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었다. 그 단적인 실례로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피바다≫의 종자, 설움과 효성의 꽃바구니를 투쟁과 혁명의 꽃바구니로 바꿔야 한다는 ≪꽃파는 처녀≫의 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러한 종자들을 밝혀 주심으로써 위대한 주석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적적 명작들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로 옮길 수 있었다. 바로 이 과정에 종자론은 이북식 창조방식으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다른 문학예술분야에 널리 일반화되어 나갔다. ≪20세기의 문예부흥≫은 바로 이렇게 해서 꽃피게 되었던 것이다.

예술이자 곧 창조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창조적 활동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며 그 가운데서 어디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예술창조의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창조과정을 특징짓고 성과를 약속하는 핵, 종자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새롭게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종자라는 말은 인간의 높은 창조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풀어나갈 수 있는 핵, 기본 알맹이를 말한다. 쉽게 말해 농사에서 종자가 수확의 양과 질, 생육기한을 규정하는 것처럼 문학예술에서의 종자는 사상과 예술성, 그 가치와 감화력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생물학분야에서 종자가 우량한 품종으로 끊임없이 개량되어야 한다면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종자가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에는 종자가 있지만 모방에는 종자가 없다. 창조가 발견이고 성공을 가져온다면 모방은 반복이고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새롭고 특색이 있는 종자를 걷어쥐고 잘 가꾸면 높은 창조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결국에 있어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문제는 곧 종자문제이다.

작품을 창작하거나 과학을 탐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들 가운데서 본질적 특성을 띠는 핵을 올바로 찾아내는 것이 종자론의 요구이다.

종자론이 창시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고전적 명저 ≪영화예술론≫에서 처음으로 종자론이 체계화된 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마치도 종자론이 문학예술부문이나 출판, 보도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견해도 있다. 이것은 종자론의 당위성과 보편성을 옳게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나온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 수년간 이북에서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안고 가까운 앞날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종자론이며 그것을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자론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가고 있는 이북에서는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더 많이 창조될 것이며 강성대국건설도 빛나게 실현될 것이다.